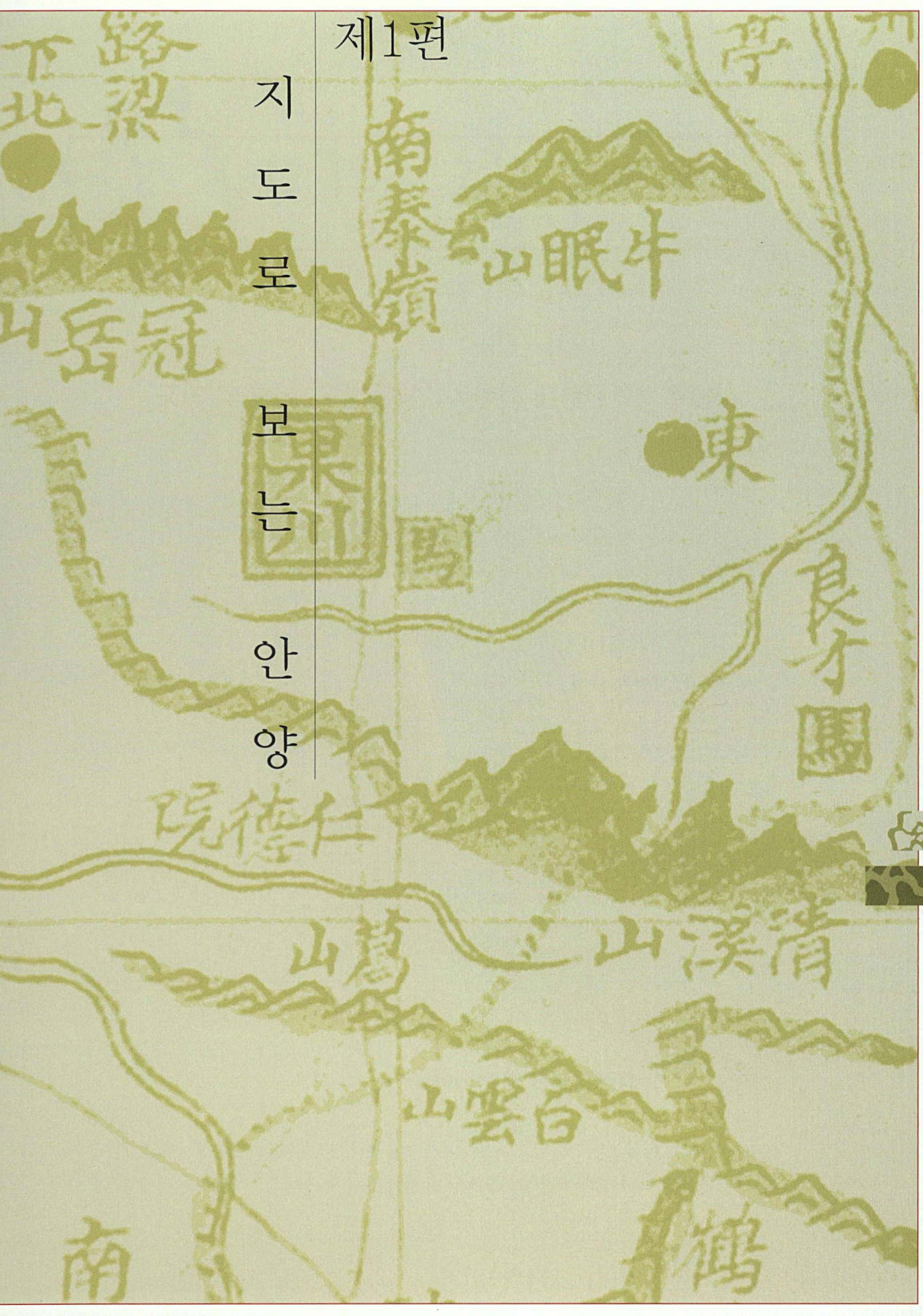


제1편

지
도
로

보
는

안
양



제1장 옛 지도 속의 안양

제1절 1700년대 전반기 『해동지도』 계통의 지도

조선시대 현재의 안양지역은 군현의 중심지가 아닌 외곽의 평범한 농촌에 불과했다. 안양지역의 대부분은 과천현의 상서면(上西面)과 하서면(下西面)에, 만안구의 석수동과 박달동은 금천현(1795년에 시흥현으로 개칭)의 현내면(縣內面)과 서면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과천현의 읍치(邑治)는 현재의 과천시 관문동 일대에 있었으며, 금천현의 읍치는 현재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일대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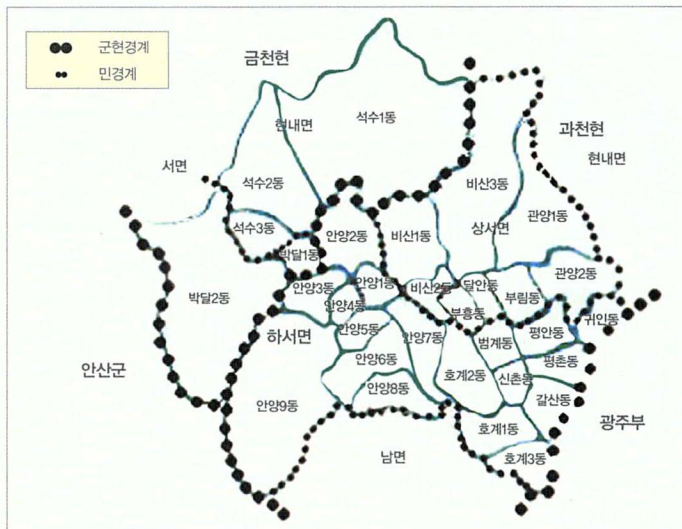
1700년대 안양지역의 면리

책명	군현	면명	리명	호구
여지도서 (1759)	과천현	上西面		編戶 : 283, □ : 980
		下西面		編戶 : 283, □ : 1,515
	금천현	縣內面	安養里	
		西面	博達里	
호구총수 (1789)	과천현	上西面	三峴一里, 三峴二里, 飛山里	元戶 : 244, □ : 1,053
	과천현	下西面	貴仁一洞, 貴仁二洞, 虎溪里, 安陽里, 後頭尾里, 道陽里	元戶 : 304, □ : 1,412
	금천현	縣內面	安養里	
		西面	博達里	

1. 그림식 군현 지도의 이해

현재 전해지고 있는 조선시대 지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림처럼 그린 그림식 군현 지도이다. 이러한 그림식 군현 지도에서는 근대식 지형도에

익숙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도와 달리 거리와 방향이 모든 부분에 일정하게 적용되지 않았으며, 기하학적인 기호보다는 실물에 가까운 형태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군현의 중심지인 읍치처럼 중요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그려 다양한 정보를 자세하게 싣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산천과 하천의 묘사는 사실적이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인식한 이미지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군현 전체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산천을 재구성하여 표현한 것이 많다. 읍치나 왕릉처럼 중요 지역이나 장소는 일반적으로 실제 지형보다 풍수적 명당 개념에 입각하여 산천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 안양지역의 군현과 면의 경계

출처 : 안양시청(<http://www.anyang.go.kr>)

이러한 그림식 지도에 대해 전통시대의 뒤떨어진 지도 제작 기술의 결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밑바탕에는 거리와 방향의 정확성을 기한 근대식 지형도만을 지도로 이해하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림식 지도는 전통시대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무수히 많이 제작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관광안내도로 주변 지역은 작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광하고자 하는 장소나 대상을 특별히 부각시켜 그린다. 이런 지도에서는 기호보다는 실물과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그려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안양지역에도 관광지에는 이런 지도가 늘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현대에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는 그림식 지도로 관광안내도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에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신의 구역을 그린 지도로 근대적인 지형도가 아니라 그림식 지도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지도 역시 축척과 방향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가 많은 곳을 특별히 크게 그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호보다는 실물에 가까운 표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더해 일반인들이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는 그림식 지도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버스와 전철의 노선도이다. 안양시에는 현재 수많은 버스 노선이 곳곳에 뻗어 있고, 남북으로 국철 1호선과 지하철 4호선이 관통하고 있다. 안양시민들은 이들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늘 노선도를 보게 되는데, 이들 노선도에는 축척과 방향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지 않다.

결국 그림식 지도는 전통시대의 뒤떨어진 지도 제작 기술 때문이 아니라 위치의 정확성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리 정보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 욕구 때문에 나타난 것이

다. 이러한 욕구는 전통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도의 변천을 단순히 정확성이라는 단선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항기의 실패 때문에 전통시대, 특히 조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조선을 너무 치켜세우려는 인식 역시 강하게 존재한다. 양쪽 모두 고지도의 올바른 이해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보다 보편적인 욕구의 차원에서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살펴보는 안양지역의 그림식 지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림식 지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

2. 지도책의 일반적 소개

1995년에 전국의 군현과 군사적 요충지를 비롯하여 도별도와 전도 및 외국지도를 망라하는 규장각 소장의 『해동지도 海東地圖』(古大4709-41)가 영인되어 간행되었다. 그동안 조선 초의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등 극히 일부의 고지도만을 알고 있던 일반인들에게 그보다 훨씬 자세하면서도 그림처럼 그려진 지도책인 『해동지도』의 간행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해동지도』는 간행되자마자 고지도 자체에 관심이 있는, 더 나아가 고지도에 담겨 있는 정보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우선 ‘해동지도’라는 명칭이 ‘조선의 지도’라는 일반 명사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유명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례가 많다. ‘해동(海東)’은 중국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서해의 북쪽 바다인 발해(渤海)의 동쪽에 있다는 의미로 조선을 가리키는 여러 용어 중 하나이다. 현재 ‘해동지도’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지도책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도 여러 개 전하고 있기 때문에 1995년에 영인 간행된 『해동지도』를 지칭할 때는 소장처와 도서번호를 병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1995년에 간행된 『해동지도』의 해설을 통해 이 지도책이 유일본이며, 나아가 최초의 원본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동일 계통의 지도책이 여러 본 발굴되었고 그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간행된 『해동지도』가 최초의 원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¹⁾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경우 『해동지도』 계통으로 『경주도회 : 좌통지도』(古4709-26), 『안동도회 : 좌통지도』(古4709-25), 『호서지도』(奎12155)의 일부 지도, 『지승 地乘』(奎15423), 『여지도 輿地圖』(古4790-68), 『광여도 廣輿圖』(古4790-58) 등이 남아 있다.²⁾ 이 계통의 지도책은 다른 기관에도 전해지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의 『여지

1) 이기봉, 「정상기의 『동국지도』-원본계통의 필사본- 해설·색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29쪽.

2) 『해동지도』를 비롯하여 이들 지도는 모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이트인 <http://e-kyujanggak.snu.ac.kr>의 자료검색·원문자료검색으로 들어가면 서비스되고 있으니 비교하여 참조하기 바란다.

도』 6책과 『각읍지도 各邑地圖』, 일본 정가당문고(靜嘉堂文庫)에 소장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열람되고 있는 『여지편람 輿地便覽』 등이 있다.³⁾ 『해동지도』 계통 지도의 최초 제작 연대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최초의 원본은 『해동지도』보다 먼저 제작되었으며, 아직까지는 지도에 주기(朱記)가 전혀 없는 『호서지도』 속의 지도들이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리고 『해동지도』 계통의 지도에는 도로가 아주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고, 『동국여지승람』 등의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지명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에서 직접 제작하여 올린 것을 중앙에서 다시 편집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해동지도』 계통 중 안양지역이 수록된 것은 『해동지도』·『지승』·『여지도』·『광여도』의 과천·시흥현 지도이다. 4개 지도 모두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구도와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지도의 크기와 자세함, 기호의 사용 등에서 일부 편차가 나타난다. 가장 큰 차이는 도로의 수록 여부이다. 『해동지도』와 『지승』에는 도로가 자세하게 표시된 반면에 『여지도』와 『광여도』에는 도로가 생략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전자의 2개 지도가 원본에 가까우며, 그중 『지승』에 비해 『해동지도』가 더 깔끔하게 그려져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730년부터 1740년 초반까지의 내용이 수록된 것으로 연구된⁴⁾ 『해동지도』를 중심으로 안양지역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3. 과천현 지도와 안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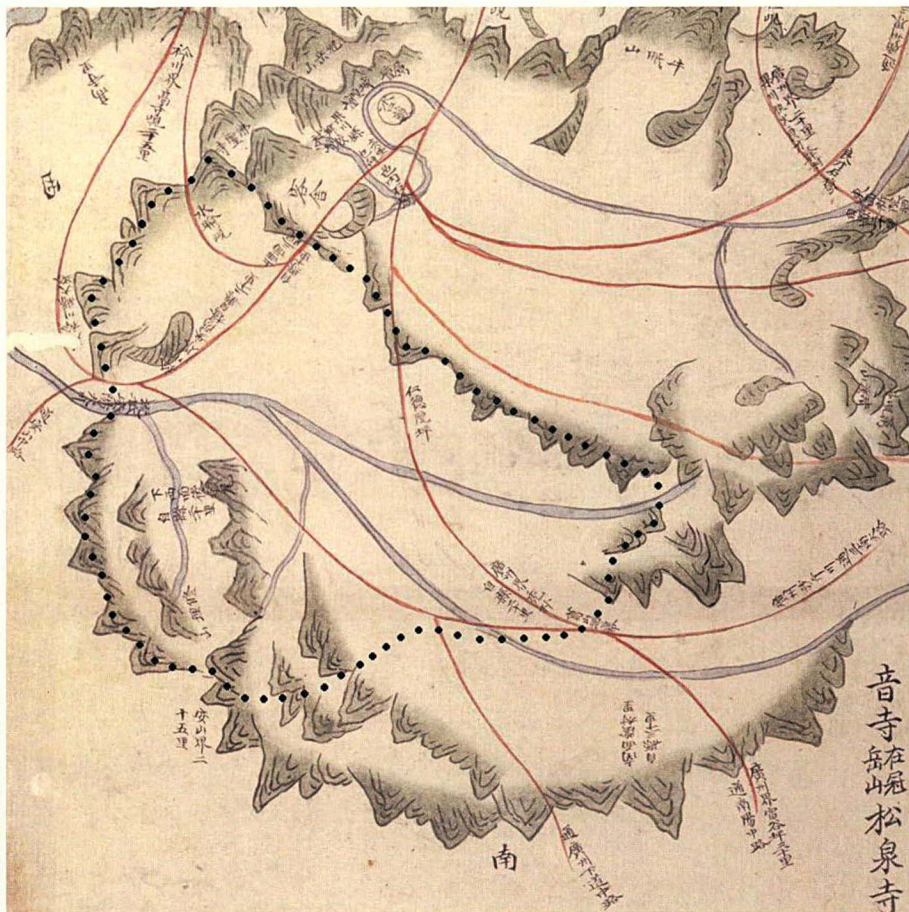
과천현은 현재의 과천시를 비롯하여 서울시의 동작구와 서초구, 석수동과 박달동을 제외한 안양시 전체, 남쪽 일부를 제외한 군포시에 걸쳐 있었다. 『해동지도』 과천현 지도에 객사(客舍) 등이 표시된 읍치 지역이 현재의 과천 지역이며, 북쪽 한강가가 서울시 동작구와 서초구이고, 남쪽의 남면(南面) 지역이 현재의 군포시 지역이다. 안양지역은 점선으로 표시된 경계선 안쪽으로 과천현의 읍치로부터 서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읍치가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록된 자연·인문 정보는 상당히 소략한 편이지만 지도 제작 당시의 지역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과천현 지도는 관아가 밀집되어 있던 읍치에서 바라보는 모습의 산줄기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산줄기식 묘사 방법은 중국이나 일본 지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선 고지도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 이면에는 산을 삶터 원기의 근원으로 여기는 산악 숭배 인식, 그리고 모든 산의 원기가 조종산(祖宗山)인 백두산으로부터 왔다는 통일국가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인식을 풍수적 자연관으로 이

제1편
지도로 보는
안양

3) 부산대학교 부산지리연구소, 『釜山·蔚山·慶尙南道 市郡別 古地圖 1』, 2004.

4) 양보경, 『郡縣地圖의 발달과 『海東地圖』, 『海東地圖: 解説·索引』,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72쪽.



규장각 소장 『해동지도』의 과천현 지도와 안양

해하고 있다.⁵⁾ 『해동지도』의 과천현 지도에서 풍수적인 자연관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현재의 과천시와 안양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인덕원 부근의 산줄기이다.

이 부분은 실제로 산이라고 하기 어려운 언덕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지도에서는 봉우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과천현의 진산(鎭山)이며 읍치에 원기를 불어넣어 주는 산이 관악산(冠岳山)인데, 이 산이 독립적인 실체로서 읍치에 원기를 불어넣어 준다고 인식했다면 인덕원 부근의 산줄기를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지도를 제작할 당시에 관악산은 조종산인 백두산으로부터의 원기를 받아 과천현의 읍치

5) 풍수가 한반도에서 유행한 것을 산이 많은 특징, 산악 숭배 사상, 농업적 자연관 등에 의해 고대로부터 일반화된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에서 체계화된 풍수적인 자연관이 한반도에 도입된 것은 통일신라 말기의 훈란기이며, 후삼국시대 왕건에 의해 채택되어 수도의 조영 원리로 정착하면서이다. 공예는 내륙에서 가장 넓은 평지 중 하나인 철원에 수도를 조영하였고, 견훤은 전주의 동고산성에 궁터를 잡았으며, 후삼국의 하나인 신라의 수도 경주는 풍수가 도입되기 이전에 자리 잡은 곳이다. 후삼국시대의 수도 4곳 중 개성을 제외한 3곳은 풍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원리로 조영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풍수적 자연관이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기보다는 다른 사상과의 경쟁 속에서 정착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경우 개경을 비롯하여 서경과 남경 등 수도에는 풍수가 철저하게 적용되었지만, 지방 중심지에는 풍수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지방 중심지까지 풍수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의 세종 때부터이며, 16세기를 지나면서 조선인의 가장 중요한 자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에 공급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백두산으로부터 이어진 산줄기가 청계산을 지나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과천시 갈현동 부근의 산줄기가 비록 낮은 언덕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과천현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 지도에서 이 부분을 사실보다 강조하여 표현한 것을 바로 이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풍수적 자연관은 기준을 어느 것으로 두느냐에 따라 주변의 산과 그 줄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달리한다. 다시 말해 산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 원기가 공급되는 삶터나 무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여지도』 과천현 지도는 과천현 정체성의 기준인 읍치를 기준으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산줄기가 읍치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읍치의 풍수적 명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나아가 읍치를 중심으로 과천현 전체가 하나의 통일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안양지역은 과천현의 중심지가 아니라 외곽이었기 때문에 지도에서 산줄기를 표현하는 기준점이 되지 못했다. 『해동지도』의 과천현 지도에 표현된 안양지역의 산과 산줄기 표현에 대한 해석은 과천현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과천현에서 평지가 가장 넓은 곳은 현재의 안양시와 군포시 지역이었다. 『여지도』 과천현 지도에서는 북쪽의 관악산(632.2m)과 서쪽의 수리산(修理山 : 469.3m)을 겹겹이 쌓인 줄기로 표현하였고, 현재의 평촌 신시가지인 동안구 등은 일부의 야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평지인 곳이기 때문에 산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하천은 상당히 단순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에 가깝게 그렸다. 현재 안양천은 안양지역을 거의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데, 1872년 「과천지도」에서는 오른쪽 아래의 삼남대로(三南大路) 방향에서 흘러와 왼쪽 가운데의 안양대천(安陽大川)으로 빠져나가는 하천이다.⁶⁾ 안양천은 현재의 의왕시 백운산 자락에서 발원하여 군포시를 지나 안양시로 들어온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의왕 지역은 광주(廣州)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안양천의 발원지가 과천현 지도에 그려지면 왜곡된 것이다. 이 지도에는 안양천의 상류가 광주 사근천(廣州沙斤川)⁷⁾ 방향에서 오는 것으로 그려진 점, 광교산에서 수리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인 현재의 지지대고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통해 볼 때 사실에 가깝게 그린 것이다.

오른쪽의 청계산 방향에서 발원하여 인덕원평(仁德院坪)을 지나 안양천에 합류하는 하천이 현재의 학의천이다. 학의천은 현재의 광교산 북쪽인 의왕시 학의동에서 발원하여 백운저수지를 지나 청계산에서 발원한 청계천을 합류시켜 인덕원 부근에서 안양시로 들어온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의왕 지역은 조선시대에 모두 광주⁸⁾ 땅이었기 때문에 학

6) 전통 하천의 명칭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하천 구간마다 해당 지역에서 부르는 명칭이 달랐다. 현재의 안양천은 전통시대에 안양교 부근에서만 안양천이라 불렸으며, 다른 구간에서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72년의 군현 지도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7) 사근천(沙斤川)은 현재의 의왕시 고천동에 있었으며, 사그네·사천·모래내 등으로 불렸다(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7(경기도상)』, 1985, 417쪽).

8) 광주 땅은 의왕시를 지나 현재의 안산시 동쪽의 시화호에까지 뻗어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군현 사이에 깊숙이 뻗어 있는 땅을 개의 이빨처럼 생겼다고 하여 ‘犬牙相入地’라고 부른다.

의천의 발원지 역시 과천현이 아니었다. 따라서 과천현 지도에 학의천의 발원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1895년 「과천지도」를 보면 학의천 상류가 상당히 굽게 그려져 있다. 이는 과천과 광주의 경계선에서 학의천이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가 현재의 의왕 지역인 광주 땅에서 발원하고 있음을 절묘하게 표시한 것이다. 그밖에 수리산 북쪽에서 발원하여 안양천에 합류하는 하천은 현재의 수암천이다. 수리산 동쪽에서 발원하여 안양천으로 합류하는 것은 군포시에서 안양천으로 흘러드는 산본천이다.

『해동지도』 과천현 지도의 안양지역에 가장 풍부하게 담겨 있는 인문 정보는 도로이며, 대로와 중로 및 명칭이 붙어 있지 않은 것(소로) 등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도로의 구분이 이렇게 자세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정보로 취급했다는 의미이다. 다만 대중소의 구분은 도로의 폭이 아니라 이용자의 수나 중요도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비록 그림식 지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제시대의 지형도와 비교해 보면 도로가 놀랄만큼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도로 정보의 표시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한 도로 정보는 뒷부분에서 살펴볼 방안식 군현 지도의 제작에 중요한 정보로 이용되었다.

『해동지도』 과천현 지도에 표시된 대로는 ‘광주사근천통삼남대로(廣州沙斤川通三南大路)’와 ‘통금천현대로(通衿川縣大路)’ 등 2개이다. 이 중 ‘광주사근천통삼남대로’에서 ‘통삼남대로’는 ‘삼남으로 통하는 대로’란 뜻으로⁹⁾ 한양-동작진-호현(狐峴: 현재 남태령)-과천 읍치를 지나 남쪽으로 통하는 최단 코스이다. 현대의 연구자들은 보통 ‘삼남대로’라 지칭하는데, 이 명칭은 충청·전라·경상 등 삼남의 모든 사람들이 한양을 오고 갈 때 이용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삼남 지역 모두가 아니라 전라도 전체, 충청도 서부와 남부 지역, 경상도 서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충청도의 동북부와 경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재(조령)와 죽령을 거쳐 충청도의 충주와 경기도의 광주를 거치는 도로, 즉 영남대로를 이용하여 한양을 오고 갔다. 삼남대로를 이용해 한양을 오고 간 사람들 중에는 경기도 남부 지역 출신자들도 있었다.

삼남대로는 한양 남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도로이다. 『해동지도』 과천현 지도의 삼남대로 위에는 갈산주막(葛山酒幕)이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말 ‘갈미’에 대한 한자 표기이다.¹⁰⁾ 갈미마을은 현재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내손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 갈산주막은 의왕시 내손동의 갈미마을에 있다.¹¹⁾ 그 앞쪽에 인덕원평이 표시되어 있는데, 공용 여행자의 숙식을 제공하기 위한 인덕원이 설치되면서 불리워진 명칭이다. 현재의 관양2동 인덕원사거리 부근을 말하며, 주막이 성행했던 곳이라 한다.¹²⁾

9) 廣州沙斤川은 대로가 지나가는 지점 중 하나인 ‘광주부의 沙斤川’을 의미한다.

10) ‘山’ 한자는 우리말로 ‘로’를 의미하는데, ‘로’ 보다는 ‘미’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안양시의 비산동에서 ‘飛山’은 우리말 ‘날미’의 한자 표기이다.

11)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149쪽.

12) 이승언, 위의 책, 459쪽.

조선 후기에 들어 관 주도의 원(院) 기능이 거의 마비되면서 민간의 주막이 대체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다.

지도의 왼쪽에는 ‘통금천현대로(通衿川縣大路)’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과천현을 중심으로 ‘금천현으로 통하는 대로’라는 의미이다. 이 도로는 안양 시내를 지나 삼남대로와 연결되는데, 현재의 1번 국도와 거의 동일하지만 주막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삼남대로보다 사람들이 덜 다니던 도로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도로에서 오른쪽 아래로 뻗은 ‘통광주하도중로(通廣州下道中路)’는 ‘광주의 하도로 통하는 중로’란 뜻인데, 현재 ‘하도’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현재의 군포시 남서쪽과 안산시의 동쪽 지역이 광주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안양시와 군포시 경계에서 나누어져 군포시 산본동을 지나 속달동-둔대동을 연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도 왼쪽의 안양교에서 과천 읍내까지 뻗은 도로는 현재의 안양 시내에서 57번 도로를 따라가다가 관양중학교에서 소로로 꺾어져 간촌동(새말)-부림동을 지나 과천시 갈현동의 별말로 연결된 도로이다.

이 도로에서 북쪽의 수유현(水踰峴)으로 연결된 도로는 안남미(현 동안구 비산3동)에서 현재의 삼성천을 거쳐 신림동 서울대학교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수유현은 ‘수여현(水餘峴)’이라고도 기록하는데, 우리말 ‘무너미고개’의 한자식 표기이다.¹³⁾ ‘무’를 ‘氷(물)’로, ‘너미’를 ‘踰(넘다)’나 ‘餘(남다)’로 표기한 것이다. 이 도로는 대로도 중로도 아닌 소로에 불과하며, 이 지역 사람들만이 이용하던 것이다. 또한 수유현이란 이름은 『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문헌비고』 등 관에서 제작한 전국 군현지리지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과천현에서 제작된 읍지도에 등장하지 않는다. 즉 『해동지도』 과천현 지도가 과천현에서 직접 그려 올려진 것을 재편집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도로 다음으로 많이 기록된 정보는 행정 명칭으로 ‘상서면삼현자현십리(上西面三峴自縣十里)’와 ‘하서면후두미자현이십리(下西面後頭尾自縣二十里)’ 등 2개가 있다. 조선 시대 안양지역의 대부분이 행정적으로 과천현의 상서면과 하서면에 속해 있었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했는데, 앞의 2개 정보는 그것을 표현한 것이다.

상서면에는 삼현1리(三峴一里)·삼현2리(三峴二里)·비산리(飛山里) 등 3개의 리가 있었고, 하서면에는 귀인1동(貴仁一洞)·귀인2동(貴仁二洞)·호계리(虎溪里)·안양리(安陽里)·후두미리(後頭尾里)·도양리(道陽里) 등 6개의 리가 기록되어 있다. 앞의 2개 정보에서 상서면의 삼현과 하서면의 후두미는 각 면에 속해 있는 리의 명칭이다. 삼현은 현재의 관양1·2동과 부림동 지역으로 과천현의 읍치까지 가는데 고개 셋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 한다.¹⁴⁾ 후두미는 안양9동으로 우리말 ‘뒤뜸이’에 대한 한자 표기이다. 상서면과 하서면의 여러 리 중 『해동지도』 과천현 지도에서 2개의 리가 선

13) 이승언, 위의 책, 306쪽.

14) 이승언, 위의 책, 116쪽. ‘三峴’이란 한자 표기에 대한 한글 발음은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한말 지형도에는 ‘세오카이(세오카이)’로 적혀 있는데, 우리말 ‘세오개’를 일본 문자인 가타카나로 기록한 것이다.

택되어 기록된 이유를 삼현 뒤의 ‘읍치로부터 10리’, 후두미 뒤의 ‘읍치로부터 20리’라는 기록을 통해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면(面)은 점이 아니라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거리를 다르게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거리의 측정은 직선이 아니라 도로를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서면과 하서면의 거리는 도로를 따라 일정한 지점을 지표로 잡아 측정되어 기록된 것이다. 『해동지도』 과천현 지도를 보면 읍치로부터 상서면과 하서면 방향의 도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상서면의 10리와 하서면의 20리는 이 도로 위에 있던 상서면의 삼현과 하서면의 후두미까지의 거리를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상서면은 읍치로부터 현내면과 하서면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를 따라가면 나오는 첫 번째 리인 삼현이, 하서면은 상서면과 안산군 경계선의 마지막 리인 후두미가 선택된 것으로 판단된다.¹⁵⁾

다른 군현과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중요하게 기록한 것은 ‘금천계안양교자현이십리(衿川界安陽橋自縣二十里)’, ‘안산계이십오리(安山界二十五里)’, ‘광주계독박자현이십리(廣州界禿朴自縣二十里)’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금천현의 경계였던 안양교까지의 거리는 상서면을 지나 하서면으로 이어진 도로를 통해 측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20리로 기록된 후두미까지와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다. 서남쪽 안산계까지의 25리는 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후두미마을을 지나 안산군의 읍치인 현재의 수암동으로 넘어가던 수리산 북쪽 기슭의 ‘뒤뜸이고개’까지로 추정된다. 후두미마을까지 20리이기 때문에 뒤뜸이고개¹⁶⁾까지는 25리로 추정할 수 있다. 광주계의 독박은 현재 평촌동 민배기마을이다.¹⁷⁾ 이 마을은 과천현의 읍치로부터 삼남대로를 따라 내려갈 때 현재의 의왕시인 광주 땅의 경계와 만나는 첫 번째 리이다.¹⁸⁾



4. 금천현 지도와 안양

조선시대 안양지역 군현과 면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도를 보면, 현재의 안양지

15) 김정호의 『대동지지 大東地志』에는 상서면의 초경(初境)이 10리이고, 종경(終境)이 20리로 나오며, 하서면에는 서남쪽 종경(終境)이 25리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16) 이승언, 앞의 책, 306쪽. 뒤뜸이고개에 대해 안양시 박달동-안산시 수암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안양과 안산 간을 왕래하는 큰 통로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동지도』 과천현 지도에는 이 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비슷한 방향에 표시된 ‘通安山中路’는 금천현의 방향에서 안산으로 통하는 중요한 도로로서 현재의 안양시 박달동의 박달고개 방향으로 판단된다.

17) 이승언, 위의 책, 168쪽. ‘禿’은 우리말 ‘민(民동산)’에 대한, ‘只’는 우리말 ‘기’에 대한 한자 표기이기 때문에 ‘禿朴只’가 ‘민바기’ 또는 ‘민배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18) 군현경계까지의 거리 기록이 자세한 것은 『해동지도』에 수록된 대부분의 군현 지도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다. 이는 군현에서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일정한 형식을 부여했다는 의미이며, 비록 그림식 지도이지만 방안식 지도의 제작에서 이런 자료가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역 중 조선시대의 금천현에 속해 있는 지역은 석수1·3동과 박달1·2동이다. 석수1·3동은 금천현 현내면의 안양리로, 박달1·2동은 서면의 박달리로 편제되어 있었다. 『해동지도』 금천현 지도에는 이러한 지명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안양리는 삼막사(三幕寺) 부근에, 박달리는 '남'과 '안산계십오리'가 기록되어 있는 부근에 있었다.

행정 지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남자하동(南紫霞洞)이란 명칭이 삼막사 부근에 기록되어 있는데, '동'은 마을뿐만 아니라 골짜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자하동이란 명칭은 조선 후기 시서화(詩書畵)의 삼절(三絶)로 유명한 자하(紫霞) 신위(申緯 : 1769~1847)가 살았던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¹⁹⁾ 그러나 『해동지도』 금천현 지도는 1730~1740년대에 제작되어 신위의 생존 연대보다 더 앞선 시기이므로 신위가 원래 자하동이란 골짜기에 들어와 살면서 그 명칭을 따서 호를 붙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자하동이란 명칭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부근의 관악산 북쪽 골짜기와 과천시 방향에서 관악산으로 올라가는 골짜기를 말하는데,²⁰⁾ 『해동지도』에서는 현재의 서울대학교 부근을 북자하동으로, 현재의 삼막사 부근을 남자하동으로 표기하고 있어 지도 제작 당시의 인식이 현재와 달랐음을 엿볼 수 있다.



규장각 소장 『해동지도』의 금천현 지도와 안양

제1편
지도로 보는
안양

1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서울편), 1966, 157쪽.

20) 이승언, 앞의 책, 225쪽.

사찰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삼막사가 표시되어 있는데, 신라 677년(문무왕 17)에 창건되어 1407년(태종 7)에 크게 중수되었다고 한다. 삼막사 주변에는 보물 제4호인 당간지주가 있는 중초사(中初寺)터와 안양리의 명칭이 유래된 안양사(安養寺)터 등 유명한 절터가 있었지만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를 통해 지도 제작 당시에 있었던 사찰 위주로 정보가 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막사 바로 아래쪽에는 고성기(古城基)가 표시되어 있는데,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과의 경계선에 있는 호암산성이다. 많은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던 산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려시대 전반기까지 금천현의 중심지가 있었던 산성으로 새롭게 연구되고 있다.²¹⁾ 호암산성에서는 금천현의 중요 지역이 한눈에 조망되며, 고려 전기 이후 조선시대 금천현의 중심지가 있었던 현재의 서울시 금천구청 부근의 평지로 읍치가 내려왔다.

도로는 금천현의 읍치에서 현재의 안양시 방향으로 ‘안양교통수원대로(安養橋通水原大路)’ 1개가 표시되어 있다. 안양교는 현재의 삼성천 위에 있던 다리로 과천현과의 경계선인데 잘못 표시되어 있다. ‘통수원대로’는 ‘수원으로 통하는 대로’라는 의미이다. 과천현 지도에는 이 도로의 남쪽 지역에 ‘삼남으로 통하는 대로’라는 ‘통삼남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어 군현마다 표기하는 방식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안양교가 과천현과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통과천대로(通果川大路)’라고 기록될 수도 있지만 이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갈 때 읍치가 첫 번째로 나오는 군현인 수원을 기준으로 기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오른쪽 위의 ‘안산계십오리’는 비록 이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방면의 중요한 도로였던 현재의 박달동 박달고개를 기준으로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지도』 금천현 지도의 수유령(水踰嶺) 표기 오류

자연 정보 중 산은 삼성산(三聖山 : 480.9m)과 향로봉(香爐峰)이 기록되어 있는데, 향로봉의 위치는 현재 분명하지 않다. 고개로는 수유령(水踰嶺)이 표시되어 있는데, 안남미(현 동안구 비산3동)에서 현재의 삼성천을 거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서울대학교로 넘어가는 ‘무너미고개’에 대한 한자 표기이다. 수유령은 앞에서 언급한 규장각 소장본의 『해동지도』와 거의 동일한 『지승』·『여지도』·『광여도』의 금천현 지도에 모두 수유산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이를

21) 박성현, 『新羅 郡縣圖』과 그 성격-6~8세기 漢州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3~14쪽.

통해 『해동지도』의 것이 원본에 가장 가까우며, 후대의 필사 과정에서 잘못 표기된 것이 교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베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연 정보 중 하천을 보면 안양교가 표시되어 있는 곳에는 현재 안양천과 삼성천 2개가 있다. 안양천은 조선시대에는 광주에 속했던 현재의 의왕시에서 발원하여 과천현의 땅이었던 안양지역을 통해 금천현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해동지도』 금천현 지도에서는 안양천의 발원지가 안양교에서 아주 가까우며, 삼성천이 더 크고 긴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수유령이 수유산으로 잘못 표시된 『지승』·『여지도』·『광여도』의 금천현 지도에는 모두 안양교가 안양천이 아니라 삼성천에 표시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는 『해동지도』의 금천현 지도가 잘못된 것으로 이 지도 자체도 원본이 아니라 원본의 필사본이었음을 알려 주는 좋은 정보가 된다.

제2절 1872년 과천·시흥현 지도

1. 지도의 일반적 소개

19세기의 조선 사회는 계속된 세도정치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삼정 문란은 민생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었다. 부패한 관료는 백성들에 대한 수탈을 일삼았으며 이는 빈번한 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권한 흥선대원군은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는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외척세력을 일소하고 당쟁을 타파하며 군제를 정비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병인·신미양요를 겪은 이후로는 서양의 침략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게 되는데 국방과 치안을 위한 관제 개정, 군제의 개편, 군사시설의 확충과 경비의 강화, 군기의 정비와 실험 등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지방의 실정 파악은 시급한 과제였고 이를 위해 1871년 전국적인 읍지 편찬사업과 1872년 전국적인 차원의 지도 제작사업이 실행되었다.²²⁾

1872년에 제작된 지도는 군현뿐만 아니라 군사 요충지인 진보(鎭堡)의 지도를 다수 포함하여 총 481매가 규장각에 보존되어 있다.²³⁾ 이들 지도는 군현별로 작성되어 올려 보낸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 전라도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구도와 내용 및 표현 방법이

제1편
지도로 보는
안양

15

22) 양보경, 『朝鮮時代의 地方地圖 -高宗代 郡縣地圖를 중심으로-』, 『朝鮮時代 地方地圖』(서울대학교 규장각 전시회 도록), 1995 :

배우성, 『朝鮮後期 地方地圖 : 京畿道편』, 해설,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23) 이들 지도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이트인 <http://e-kyujanggak.snu.ac.kr>에서 원문과 해설 및 지명의 색인이 서비스되고 있다.

군현마다 다르다. 이를 통해 각 군현의 지도 제작 능력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인식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들 지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 지방에서 그려 올려 보낸 것을 중앙에서 다시 일정한 규칙하여 편제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앞에서 살펴본 『해동지도』 계통과 비교하여 1872년 국가의 지도 제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들 지도를 통해 흥선대원군의 국방력 강화 의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지에 비해 실행력이 상당히 약했음을 보여 주는 근거도 될 수 있다.

2. 과천지도와 안양

1872년에 제작된 규장각 소장의 「과천지도 果川地圖」(奎10370)²⁴⁾에는 앞에서 소개한 『해동지도』의 과천현 지도에 비해 관악산·청계산·수리산·태을산 등 유명한 산들의 모습이 마치 산수화를 그린 것처럼 강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산을 제외한 다른 산줄기는 『해동지도』의 과천현 지도에 비해 상당히 약하게 처리되었다. 그렇지만 백두산으로부터 산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조선 후기의 풍수적인 표현은 1872년 「과천지도」에도 미약하지만 잘 나타나고 있다. 상서면 오른쪽에 아래쪽(동)의 청계산으로부터 위쪽의 관악산까지 아주 낮은 산줄기가 끊어진 듯 하면서도 이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청계산에서 과천시 갈현동을 지나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분수계이다.

안양지역의 산 표현에서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수리산보다 남쪽에 더 크게 묘사된 태을산(太乙山)과 아래쪽의 갈산(葛山)이다. 우선 태을산은 조선 전기 『동국여지승람』의 과천현 지리지나 『해동지도』의 과천현 지도에는 등장하지 않는 산이다. 1759년경에 편찬된 『여지도서 輿地圖書』의 과천현 산천조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문헌비고』와 이후 『읍지』에 지속적으로 기록된다. 그런데 현재 이 태을산이 어느 것인지에 대한 기록을 찾아내기 어려워 여러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지도서』의 과천현 산천조에는 태을산이 수리산과 동일한 “현 남쪽 25리에 있으며, 수리산의 북쪽 기슭에서 맥이 갈라진다”라고 되어 있다. 『문헌비고』 여지고9 산천3의 과천 부분에는 수리산이 “읍지에는 일명 태을산 또는 일명 견불산(見佛山)이라 하였다”고 나온다. 김정호의 『대동지지 大東地志』의 안산 산천 주(註)에도 수리산 세주에 “태을산이라고도 하고 견불산이라고도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 볼 때 태을산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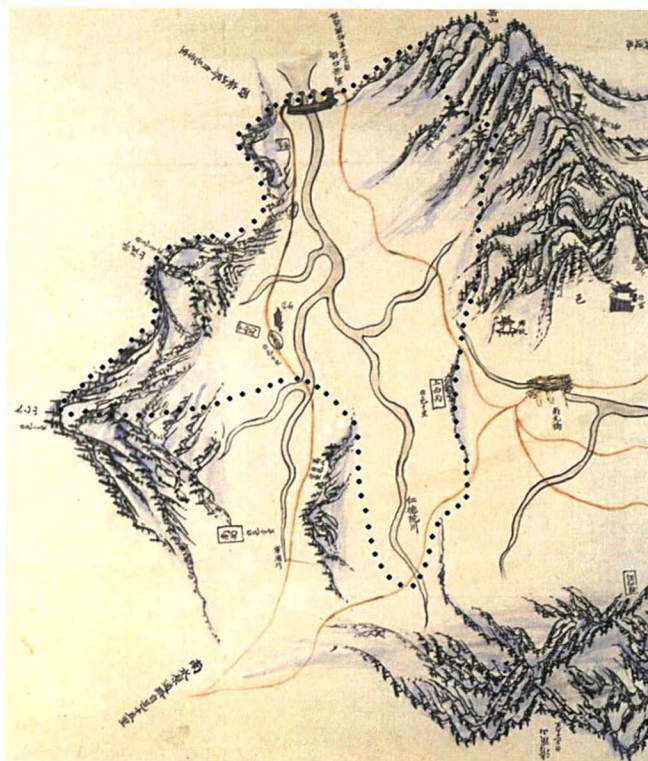
24) 1759년경에 편찬된 『여지도서』의 과천현읍지에 수록된 지도와 전체적인 구도가 거의 동일하여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의 지도보다 훨씬 크고 자세하며 화려하게 그려져 있고 내용도 많이 첨가되어 있어 그대로 필사한 것은 아니다. 규장각에서 1998년에 간행 편집한 『경기도읍지』의 과천군읍지(奎10708)에도 비슷한 지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본 지도보다 훨씬 소략하고 거칠게 그려져 있다. 과천군읍지가 과천이 현에서 군으로 승격된 1896년 이후에 제작된 것을 통해 볼 때 본 지도 계통의 것을 거칠게 필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리산 북쪽 근처의 산이며, 수리산과 아주 가깝게 붙어 있어 같은 산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1872년 「과천지도」의 태을산 묘사는 수리산 남쪽으로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수리산과 가까이 있는 높은 산을 그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지도에서 관악산이나 청계산 등의 묘사가 꼭 산 줄기의 남북과 동서라는 방향을 구분하기보다는 부근의 산을 웅장하게 표현하려고만 노력했던 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수리산 근처에서 태을산과 비슷한 명칭의 산으로 알려진 것이 안양9동 담배촌 근처의 수리산 연봉인 태양산(太陽山)이다.²⁵⁾ 태양산은 『여지도서』의 묘사처럼 수리산 북쪽 기슭의 맥이 갈라진 곳이기도 하다.

지도 약간 아래쪽의 갈산은 앞에서 서술했듯이 현재 평촌동과 의왕시 내손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갈미마을의 한자 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을 뒤편에 있는 산의 명칭이기도 하다. 현재 갈산의 위치는 모락산(385.8m)에서 갈미마을로 연결된 봉우리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²⁶⁾ 1872년 「과천지도」에서 갈산의 위치는 과천현의 읍치에서 인덕원천을 지나 ‘남수원통로(南水原通路)’ 즉, ‘남쪽의 수원으로 통하는’ 삼남대로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삼남대로는 갈산을 위쪽으로 돌아 안양교 방면에서 오는 도로와 군포장 근처에서 만나야 사실에 부합된다.

자연 정보 중 하천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하천의 명칭에 대한 전통시대와 일제시대 이후의 차이점에 대해 잠깐 언급하려 한다. 전통시대의 하천 명칭은 일제시대 이후처럼 본류와 지류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며, 동일한 하천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하천의 명칭도 현재처럼 ‘○○천’이나 ‘○○강’의 일률적인 형식을 쓰기보다는 여울·바위·나루·포구·다리 등 하천 주변의 구체적인 지명을 그대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도나 지리지에 기록된 하천의 명칭이 당시에 일상적으로 불리던 것이 아니라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1872년의 「과천지도」와 안양

제1편
지도로 보는
안양

25) 이승연, 앞의 책, 246쪽.

26) 이승연, 위의 책, 149쪽.

일제시대에 들어와 홍수나 가뭄 등에 대비한 하천 관리의 개념이 대두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구간마다 다양한 하천의 명칭을 분류와 지류 등으로 나누어 하나로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분류로 지정되면 각종 문서에서 전 구간에 하나의 명칭만 사용하도록 정했으며, 지류 등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도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이러한 공식적 하천 명칭이 아니라 전통시대처럼 구간마다 전혀 다르게 사용하였다. 1960년대 이후 이촌향도에 의한 도시화가 활발해지고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공식적 하천명의 사용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하천의 구간마다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던 전통시대의 모습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1872년 「과천지도」에서 하천은 현재 안양천이라 부르는 군포천(軍浦川)과 학의천이라 부르는 인덕원천(仁德院川) 2개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안양천을 모두 군포천이라 부른 것도 아니고, 학의천을 모두 인덕원천이라 부른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동국여지승람』의 과천현 산천조에는 인덕원천이 현 남쪽 14리에 있고, 학고개천(鶴古介川)이 현 서쪽 19리 지점에 있다고 되어 있어 마치 다른 하천처럼 인식될 수 있다.²⁷⁾ 그러나 학고개천은 학의천의 상류에 있던 학고개를 기준으로, 인덕원천은 학의천의 중류지점인 인덕원을 기준으로 기록된 것일 뿐이다.

『여지도서』의 과천현 산천조에는 인덕원천과 안양천이 기록되어 있다. 인덕원천에는 ‘현 남쪽 10리에 있으며, 근원이 청계산에서 나와 서쪽으로 흘러 금천 경계에서 안양천과 합류한다’고, 안양천에는 ‘현 서쪽 20리에 있는데, 하나의 근원이 사근천(沙斤川)이고, 하나의 근원이 인덕원천인데 금천의 염천(鹽川)에 합류된다’고 세주가 붙어 있다. 이 세주를 보면 현재의 안양천이 전통시대에는 안양교(구 만안교) 자리에서만 안양천이라 불린 것이며, 상류인 현재의 의왕시 고천동 부근에서는 사근천(사그네)이라고 불리웠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양천이 금천현의 다른 부분에서는 염천이라 불렸음도 알 수 있는데, 이밖에도 안양천은 하류 지역에서 대천(大川)·오목내·기탄(岐灘)·철곶포(鐵串浦)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²⁸⁾ 앞에서 언급한 군포천은 안양천변의 군포장이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붙여진 명칭으로 볼 수 있다.

『해동지도』의 과천현 지도에서 가장 자세한 인문 정보였던 도로 정보가 1872년의 「과천지도」에서는 상당히 소략하게 처리되었다. 갈산주막도 갈산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 주막이 아니라 산을 표시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반면에 『해동지도』의 과천현 지도에 나타나지 않은 안양장과 군포장, 사창(社倉), 행궁기(行宮基) 등이 새롭게 표시되어 있고, 안양석교의 모습이 실제처럼 강조되어 그려져 있다.

27) 학고개는 현재의 의왕시 학의동에서 성남시 운중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므로 ‘현 서쪽 19리’는 ‘현 동쪽 19리’ 또는 ‘현 남쪽 19리’의 오키로 판단된다.

28) 이승언, 앞의 책, 297쪽에는 안양천의 유래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 들어 있다. 예를 들어 안양천이 본래 현재의 삼성천을 의미했지만 1930년대에 들어 현재의 안양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1400~1500년대에는 안양천을 대천이라 했다가 조선 후기부터 대천 또는 기탄으로 불리웠다는 하천연구가 이형석의 주장을 싣고 있다.

다음 표는 조선시대 과천현과 시흥현의 장시를 정리한 것이다. 1827년(순조 27)에 편찬된 『임원십육지』에는 시흥현에는 장시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반면 과천현에는 1872년 「과천지도」와 동일하게 군포장과 안양장이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1851·1856년 사이에 김정호의 『동여도지 東輿圖志』를 바탕으로 최성환에 의해 편찬된 『여도비지 輿圖備志』에는 과천현의 군포장과 안양장이 없어지고 읍내장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임원십육지』에는 장시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던 시흥현에 읍내장과 안양장 2개가 기록되어 있다.²⁹⁾ 이런 기록들을 통해 볼 때 1800년대에 안양장은 지속적으로 존재한 반면에 군포장은 과천현의 읍내장으로 옮겨졌다가 1872년경에는 다시 옮겨온 것이 아닌가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과천현과 시흥현의 장시

책명	군현	장시	장날
임원십육지(1827)	과천현	군포장	1, 6
		안양장	3, 8
여도비지(1851~1856)	과천현	읍내장	1, 6
	시흥현	읍내장	5, 10
		안양장	3, 8

1872년 「과천지도」에는 안양장의 위치가 만안교 근처에, 군포장의 위치가 현재의 안양천 서쪽 방면에 있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중 안양장의 위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군포장의 위치는 구 군포사거리와 맑은내(현재 안양천) 사이에 있었는데,³⁰⁾ 이는 안양천의 동쪽에 해당되어 문제가 된다. 조선시대의 장시는 5일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다가 장날만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에 가장 알맞은 특징을 겸비한 장소는 주인이 없으면서 넓게 트여 있는 하천변이었고, 조선시대의 장시 중 상당수가 하천변에 임시 건물의 형태로 들어섰다. 안양장과 군포장이 현재의 안양천변에 표시된 것도 그런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홍수 때 범람으로 인해 장시의 구체적 장소는 약간씩 옮겨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시의 입지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안양천 서쪽에 군포장이 있는 것으로 표시된 1872년 「과천 지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사창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를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인문 정보이다. 사창의 '사'는 행정단위인 '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역하면 '각 면마다 설치한 창고'로서 흥년과 춘궁기에 곡식을 빈민에게 대여하고, 풍년과 추수기에 이를 반납시키는 진휼제도였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조선시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시행된 것은 환곡(還穀)제도로 의

29) 1860년대에 김정호에 의해 편찬된 『대동지지』에도 『여도비지』와 동일하게 장시가 기록되어 있다.

30) 이승언, 앞의 책, 156~157쪽.

창(義倉)이 주도가 되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의창 주도의 환곡제도는 국영(國營), 즉 지방관과 서리들이 운영하는 것이었고, 반면에 사창은 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었다.³¹⁾ 이러한 사창제도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를 보여 주었던 이유는 환곡이 국영으로 이루어지면서 고리대로 변하여 조선 후기 삼정문란 중 가장 폐해가 컸기 때문이다.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환곡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국영이 아니라 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사창제도를 실시하였고, 이식을 1할로 고정하는 등의 정책을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1872년 흥선대원군의 명령에 의해 제작된 군현 지도에 대부분 표시되어 있는 사창이 대표적인 인문 정보였고, 1872년 「과천지도」도 이 같은 경향성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행궁기와 만안교(萬安橋)는 정조의 화성 능행과 관련되어 있는 인문 정보이다. 1789년(정조 13)에 정조는 양주 배봉산에 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의 읍치가 자리 잡고 있던 화산 남쪽에 옮겨 현릉원이라 칭하였다. 이후 1790년부터 정조가 사망하는 1800년까지 11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화성 능행이 이루어지는데, 1794년까지는 삼남대로였던 과천현의 읍치를 지나는 길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시흥현의 읍치를 지나 현재의 안양을 거치는 길을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대대적인 도로 보수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1794년에 안양주필소(安養駐蹕所)인 안양행궁(安養行宮)이 건립되고,³²⁾ 1795년에는 나무다리였던 만안교가 홍예석교(虹霓石橋 : 무지개돌다리)로 교체되었다.³³⁾ 안양행궁은 정조가 죽은 이후에는 의미가 상실되면서 터만 남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만안교는 튼튼한 돌다리였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1872년 「과천지도」에서 웅장한 모습으로 묘사되듯이 이 지역의 중요한 명물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³⁴⁾

앞에서 언급했듯이 1700년대 전반기의 『해동지도』 과천현 지도에서 아주 자세했던 도로 정보는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그려져 있다. 다만 삼남대로, 시흥에서 삼남대로에 합류되는 도로, 현재의 안양 시내에서 과천현의 읍치를 오가는 도로 등 주요 도로는 표시되어 있다. 그밖에 망해암(望海庵)과 불성사(佛聖寺) 등의 사찰이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도 전해지고 있는 사찰이다.

3. 시흥지도와 안양

앞에서 언급했듯이 1794년에 정조의 화성 능행로가 과천현의 읍치를 지나는

31) 이홍식 편, 『증보 새국사사전』, 1995, 579·1559쪽.

32) 문원식(성결대학교 교수, 안양학연구소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안양행궁은 안양1동 674-29번지인 현재 아카데미극장 1층에 있는 강촌목장이라는 식당에서부터 그 뒤편 주차장 건물과 로얄호텔에 이르는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33) 이승언, 앞의 책, 370~3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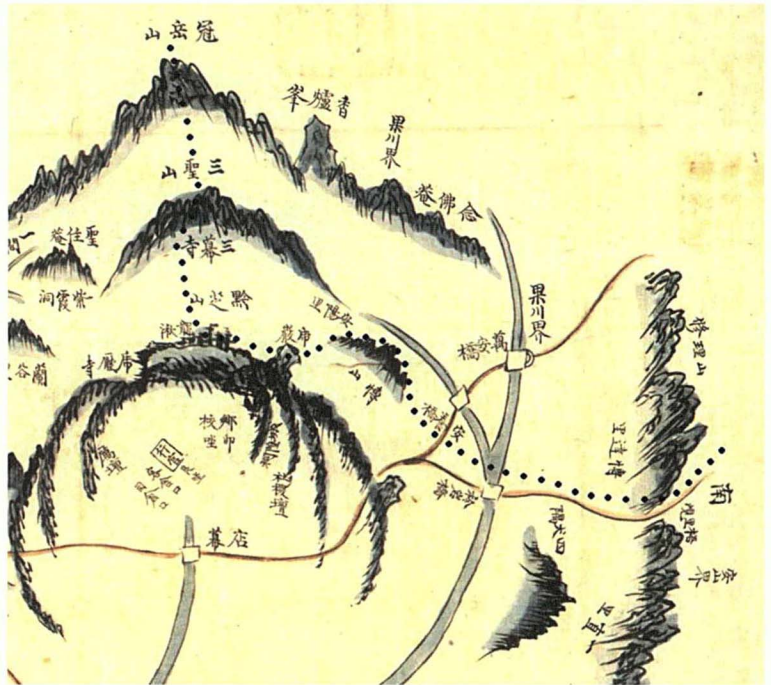
34) 만안교는 1973년 7월 10일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되었고, 1980년에 안양천에서 석수2동 270번지로 복원 이전하였다(이승언, 위의 책, 375~377쪽).

삼남대로로부터 금천현의 읍치를 지나는 도로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금천현의 읍치에 1872년 「시흥지도」에서처럼 행궁이 설치되고, 금천의 명칭이 고려 991년(성종 10)에 별호로 정해졌던 시흥으로 개정되며, 지방관의 지위도 종6품의 현감에서 종5품의 현령으로 승격되었다.

시흥현의 읍치는 동쪽의 관악산으로부터 진산인 삼성산과 금지산(黔芝山)으로 이어진 산줄기를 배경으로 서남쪽을 향해 들어서 있다. 행궁에 ‘간좌(艮坐)’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동북쪽을 뒤쪽 방향으로 하여 자리 잡았다는 뜻이다. 객사(客舍)와 사창(司倉) 등의 글씨도 행궁과 같은 방향을 취하고 있어 동일한 방향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향교에는 동쪽을 뒤쪽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는 ‘묘좌(卯坐)’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시흥지도」의 동쪽 산줄기는 읍치를 중심으로 겹겹이 싸인 것처럼, 그리고 현재의 안양천 반대편의 산줄기는 읍치에서 바라보이는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시흥현에서 현재의 안양시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읍치를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유기적 관계 속에서 배치되어 표현되었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인식된 지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부 정보는 실제와 다르게 묘사된 경우도 있다. 지도 위쪽의 염불암(念佛菴)은 실제로 삼성산에 있으며, 삼막사와 아주 가깝다. 그리고 염불암이 있는 산줄기에 표시된 향로봉이 『해동지도』의 과천현 지도에는 관악산이 아니라 삼성산에 연결된 것으로 그려져 있다. 박산(博山³⁵)의 경우도 실제로는 삼성산이 아니라 호암(虎巖)에서 뻗어나간 산줄기에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오류들은 읍치를 중심으로 관악산-삼성산-금지산에서 좌우로 뻗은 산줄기가 읍치를 겹겹이 싸는 형태로 그리고자 한 인식적 바램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과천계에서 흘러오는 하천과 안양교(安養橋)가 표시되어 있는 하천은 현재의 삼성천



1872년 「시흥지도」와 안양

35) 博山은 우리말 '박미'의 한자 표기이며, 현재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과 안양시 석수동의 경계선에 있는 마을 지명이면서 산의 지명이다.

이다. 삼성천은 삼성산 동쪽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다가 안양천에 합류되는데, 1872년 「시흥지도」에서도 실제와 부합되게 그려져 있다. 앞에서 잘못 표시된 것으로 언급한 향로봉과 염불암의 산줄기는 삼성천 안쪽으로 그려져야 실제에 부합된다. 그리고 삼성천은 시흥현과 과천현의 경계였기 때문에 관악산에서 뻗은 그 바깥쪽의 산줄기는 과천현에 속해 있다.

1872년 「시흥지도」에 표시된 인문 정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의 석수동인 현내면의 안양리와 현재 박달동으로 되어 있는 서면의 박달리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면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리가 아주 자세한 것과 관련이 있다. 도로는 정조의 화성 능행 이후 중요해진 읍치로부터 과천 방향으로의 것이 잘 표시되어 있고, 삼성천의 안양교와 안양천의 만안교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만안교에는 안양교와 달리 고리 모양의 독특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지도에 나오는 다리 중에서 만안교에만 이런 표시가 있어 무지개돌다리의 모습을 본따서 그려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조선시대 방안식 지도

1. 방안식(方眼式) 지도 이해

현재 전해지는 조선시대의 고지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규장각의 경우 지리지나 기타 자료에 삽입되어 있는 지도를 제외한 순수한 지도만도 약 6,000장 이상 보존되어 있다. 부산대학교 김기혁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보존되어 있는 고지도 중 규장각의 것이 약 30%라고 하니 대략 2만 장 안팎의 고지도가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도엽수로만 따졌을 때 이러한 고지도 중 가장 많은 것이 앞에서 살펴본 그림식 지도이며, 두 번째가 방안식 지도이고, 세 번째가 「동람도 東覽圖」라 불리는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전도와 도별도를 본 떠서 간략하게 만들어진 소형 목판본 지도이며, 네 번째가 정확한 지도의 변천사에서 18세기에 혁명적인 비약을 이룩한 정상기의 『동국지도』의 전도와 분도 계통이다.

이 중 세 번째의 동람도 계통은 현재의 일반적인 책 크기 정도에 전도와 도별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안양 정도의 넓이는 점으로 밖에 표시되지 않아 여기에서는 전혀 참고할 수 없다. 네 번째인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전도일 경우 남북 250cm에 이르는 대형 지도이지만 축척이 1:40~42만 정도에 불과해³⁶⁾ 역시 안양 정도의 넓이는 점보다 약간 큰 정도로

36) 오성학, 「鄭尙穡의 『東國地圖』에 관한 研究-製作過程과 寫本들의 系統를 中心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만 표시되어 역시 전혀 참고할 수 없다. 안양지역 정도의 정보가 최소 5개 이상 표시된 지도는 그림식 지도 이외에 두 번째의 방안식 지도가 있다. 방안식 지도로 일반인이 알고 있으면서 가장 큰 지도의 대표적인 것은 남북 660cm 정도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이다.

방안(方眼)이란 경위선(經緯線) 또는 경위선표라고도 하는데, 고지도 연구자들이 거리와 방향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동일 간격의 가로와 세로의 선을 그은 기준선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군현 단위의 지도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방안식 지도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비변사인 방안지도’로 알려진 지도들이지만³⁷⁾ 경기도의 지도는 현존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으로 오래된 방안식 군현 지도는 규장각에 소장된 『조선지도』 7책과 『팔도군현지도』 3책으로 1770년(영조 46)에 영조의 명에 의해 신경준이 주도하여 제작된 군현도로 원본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⁸⁾ 두 지도책에 들어 있는 군현 지도는 모두 20리 방안을 기준으로 그려져 있다. 이 지도들은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기본도로 하면서 그림식 지도와 지리지 등 당시 참고할 수 있는 모든 위치 정보를 비교·검토하여 제작되었다.

신경준의 주도로 제작된 20리 방안의 군현 지도는 이후 방안의 크기, 지도의 제책 방법 등에서 다양한 사본이 나타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팔도지도 八道地圖』 8책, 고려대도서관의 『여지도 輿地圖』 2책, 장서각의 『지도 地圖』 4책, 국립중앙도서관의 『동국지도 東國地圖』 1책과 『해동여지도 海東輿地圖』 3책이 남아 있다. 더 나아가 모든 군현을 연결해서 그린 후 층판을 구별하여 첩의 형태로 만든 오사카부립도서관(大阪府立圖書館) 소장의 『조선도 朝鮮圖』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동여 東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대동여지도』로까지 제작되었다. 남북으로 모든 지도를 연결하면 500cm의 대형 지도가 되며, 산줄기·물줄기·해안선·지명 등 내용적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하다.

김정호가 1834년경에 최초로 만든 『청구도 靑邱圖』를 모두 연결하면 남북으로 700cm 정도가 되어 앞의 지도들보다 더 크다. 하지만 산줄기·물줄기·해안선·지명 등 내용적으로는 앞의 지도들과 거의 동일하다. 김정호는 『청구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지도와 지리지를 비교·검토하여 『동여도지 東輿圖志』와 『여도비지 輿圖備志』란 지리지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청구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동여도 東輿圖』를 1856~1859년 사이에 제작하였으며, 내용과 표현 방법을 약간 달리하여 목판으로 제작한 『대동여지도』를 1861년에 간행하였다.³⁹⁾ 이후 새로운 지리지인 『대동지지』를 편찬하면서 나타난 오류를 반영하여 1864년에 『대동여지도』를 재간하였으며, 이후 『대동지지』를 미완으로 남긴 채 사망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1편
지도로 보는
안양

23

37)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이들 지도로는 『영남지도』·『호서지도』·『해서지도』·『함경도전도』·『충청좌도각읍지도』·『호남지도』·『영동지도』 등이 있으며, <http://e-kyujanggak.snu.ac.kr>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이들 지도의 사본들이 다른 기관에도 상당수 소장되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38) 이기봉, 『조선지도』 해설·색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이들 지도도 <http://e-kyujanggak.snu.ac.kr>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39) 『청구도』의 필사본은 국내에 10개, 『동여도』의 필사본은 3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동여지도』의 목판본과 필사본은 다양한 기관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으며, 목판의 일부가 국립중앙박물관과 송실대 박물관에 남아 있다.

김정호가 백두산을 일곱 번이나 답사하는 등 전국을 실제로 답사하여 『대동여지도』를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청구도』의 내용이 이미 1770년에 신경준 주도로 제작된 방안식 군현 지도와 거의 동일하며, 이들 내용의 오류를 최대한 교정하여 새롭게 제작한 최종 작품이 『대동여지도』이다. 이들 지도들은 군현에서 제작된 지도와 지리지를 바탕으로 전문 제작자가 제작한 것이다. 전체적인 경향성에서는 크게 틀리지 않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위치가 잘못된 경우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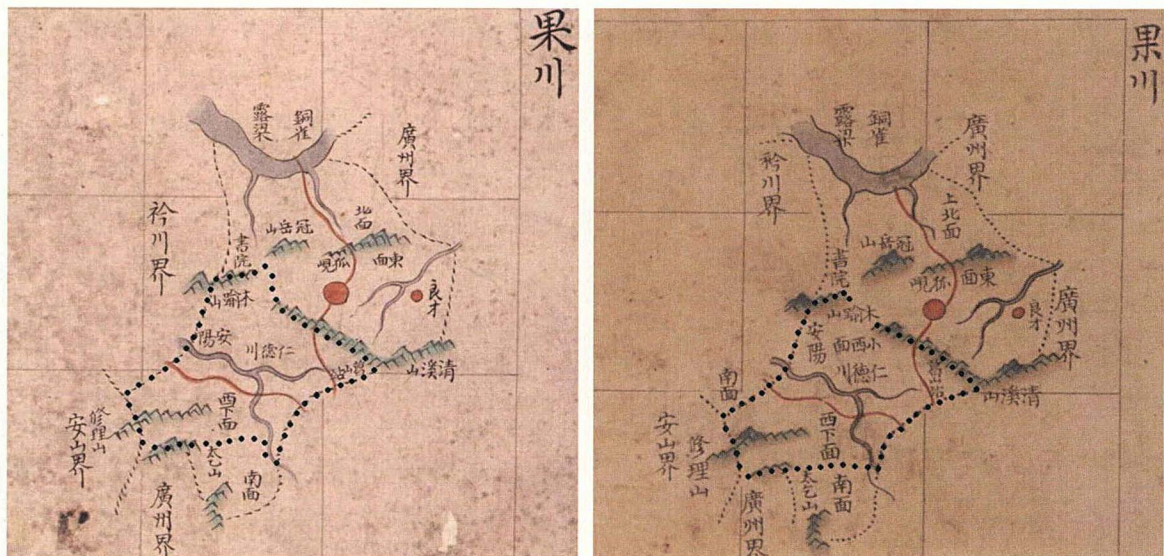
2. 『조선지도』·『팔도군현지도』와 안양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조선지도』 7책과 『팔도군현지도』 3책은 1770년 신경준 주도로 제작된 군현 지도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 중 과천지도에 나오는 안양지역의 지명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를 정리한 것이 다음 표와 같다.

『조선지도』·『팔도군현지도』에서 과천지도의 안양 지명

조선지도	팔도군현지도	실제 지명
葛山站	葛山站	葛山酒幕
木踰山	木踰山	水踰峴
西下面	西下面	下西面
—	小西面	上西面
修理山	修理山	修理山
安陽	安陽	安養橋
仁德川	仁德川	仁德院川
太乙山	太乙山	太乙山

표에서 음영이 처리된 지명은 실재를 잘못 기재한 것이다. 『조선지도』의 경우 7개 중 3개가, 『팔도군현지도』의 경우 8개 중 무려 5개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 『조선지도』에는 상서면이 아예 표시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안양(安陽)과 인덕천(仁德川)은 잘못 기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안양교와 인덕원천에서 한 글자씩 생략되어 있으며, 특히 안양은 한 글자를 생략하면서 어떤 정보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신경준의 『여암유고 旅菴遺稿』 권5의 동국여지도발(東國輿地圖跋)에는 “열읍도(列邑圖) 8권, 팔도도(八道圖) 1권, 전국도(全國圖) 족자 1개”를 “6월 6일에 시작하여 8월 14일에 마친 뒤 진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개월 8일 만에 모든 지도를 완성했다는 것은 상당한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과천지도의 안양지역에서도 그러한 오류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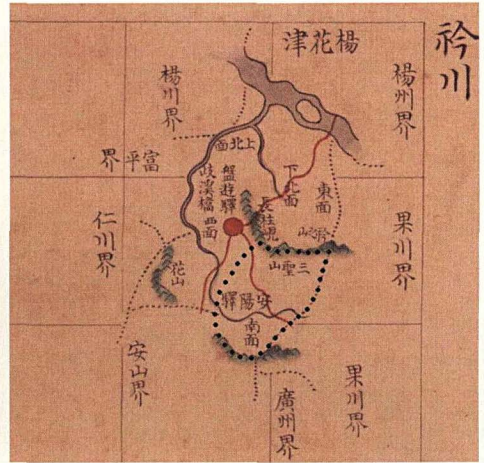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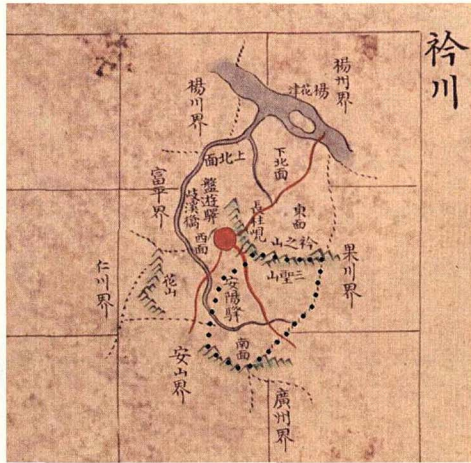


『조선포지도』와 『팔도군현지도』의 과천지도와 안양

또한 원본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원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포지도』에 ‘태을산(太乙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팔도군현지도』에 ‘태결산(太乞山)’으로 되어 있는 점, 『조선포지도』에 상서면이 아예 생략되어 있는 점 등이 그런 가능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선포지도』와 『팔도군현지도』는 최초의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지도 제작에 가장 많이 참고한 자료는 어느 것일까?

위의 표에 보면, 비록 잘못 기록되었지만 갈산참과 수유현은 지리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명들이다. 이 지명들은 앞에서 살펴본 그림식 지도인 『해동지도』 계통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이 지도들이 『해동지도』 계통의 정보를 중요하게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동지도』 계통에서 수유현을 수유산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잘못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기재했음도 알 수 있다. 수리산과 태을산을 서로 상당히 떨어뜨려 표기한 것도, 실제로 산세가 약한 청계산과 관악산 사이의 산줄기가 강조되어 그려진 것도 『해동지도』 계통의 지도 정보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지도 계통의 지명과 위치 정보를 모두 『해동지도』 계통에만 의존했던 것은 아니다. 『해동지도』 계통은 그림식 지도여서 거리와 방향의 정보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리와 방향의 정보는 주로 지리지에서 확보했으며, 『해동지도』 계통의 주기에 기록된 정보들도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인덕천(仁德川)의 경우 『해동지도』 계통의 지도에는 인덕원평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지리지에는 인덕원천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 지도도 지리지를 참조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거리와 방향의 정보는 지리지와 지도의 주기에 있는 것을 비교·검토하여 지도 위에 표기하였다.



『조선지도』와 『팔도군현지도』의 금천지도와 안양

금천지도의 안양지역에는 삼성산·안양역·남면 등 3개의 지명만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안양역은 안양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과천지도에서 이미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남면은 이 지도의 제작자들이 지도나 지리지의 위치 정보를 잘못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지명이다.

조선시대 금천현의 서·남면

면명	마을	현재 위치
서면	博達里(15리), 一直里, 四犬隅里(自警里), 所下里, 加里大里, 栗日里, 鐵山里, 巴省里(이상 10리)	광명시 철산동, 소하동, 일직동, 안양시 박달동
남면	場基里, 柳等里, 阿方里, 老溫寺里, 光明里, 廣火大里(이상 15리)	광명시 광명동, 노온사동, 가학동

출전 : 『여지도서』 ;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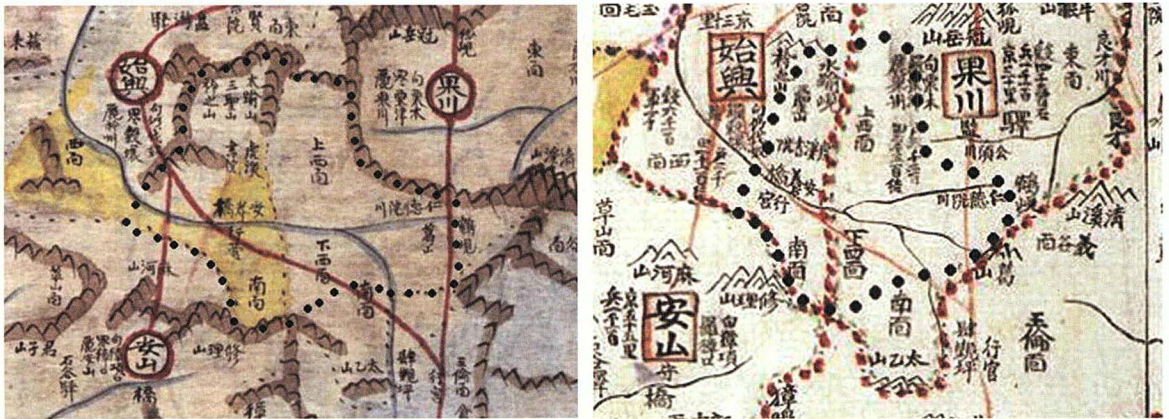
표는 조선시대 금천현의 서면과 남면에 속한 마을 이름과 현재 위치를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다. 서면과 남면은 현재의 광명시를 동서로 가르는 남북의 산줄기에 의해 갈라져 있다. 금천현의 읍치였던 현재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의 입장에서 보면 서면은 바로 서쪽에, 남면은 서면의 서쪽에 남북으로 길게 누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1759년경에 편찬된 『여지도서』의 금천현 지도는 1872년 「시흥지도」와 전체적인 구도가 거의 비슷하며, 서면과 남면의 여러 마을 이름이 자세하고 사실에 가깝게 표시되어 있다. 현재의 위도 입장에서 볼 때 서면과 남면의 마을 중 가장 남쪽에 있는 것은 서면의 박달리였으며, 과천현과 경계를 접하고 있던 것도 남면이 아니라 서면이었다. 그리고 『조선지도』와 『팔도군현지도』 금천지도 입장에서 볼 때 서면은 화산(花山) 산줄기의 동쪽에, 남면은 서쪽에 있다.

그런데 『조선지도』와 『팔도군현지도』의 금천지도에는 남면의 위치가 실제와 전혀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천현의 서면과 남면의 위치는 명칭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를 갖고 있다. 이 지도의 제작에 『여지도서』의 금천현 지도를 참고하였음에 틀림없을 것이지만, 지도의 내용보다는 서면과 남면의 명칭에 더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실제 방향과 면의 명칭이 달라 『조선지도』와 『팔도군현지도』에서 완전한 오류를 범한 해미현의 사례가 이미 연구된 바 있다.⁴⁰⁾

3. 김정호의 『청구도』·『동여도』·『대동여지도』와 안양

일반적으로 김정호의 『청구도』는 최한기의 「청구도제 靑邱圖題」에 기록되어 있는 1834년(순조 34)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각 기관에 남아 있는 10개의 필사본이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3개 정도로 나누어지고 있으며,⁴¹⁾ 김정호가 직접 작성한 「청구도범례 靑邱圖凡例」에도 내용과 형식이 다른 『청구도』를 2개 이상 제작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청구도제」는 최초본과 최종본 사이에 제작된 『청구도』를 위해 쓰여진 것으로 보여, 실제로 『청구도』는 1834년 이전과 이후에도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규장각 소장 『청구도』와 『청구요람』의 안양

규장각에는 김정호의 『청구도』 필사본이 『청구도』 4책, 『청구요람』 2책으로 남아 있다. 이 중 『청구요람』이 최종본에 가까우며, 『청구도』는 최초본도 최종본도 아닌 중간본이다. 앞의 지도는 『청구도』와 『청구요람』에서 안양지역만을 분리한 것으로, 좌측 지도에는 산이 산줄기로 되어 있는 반면 우측 지도에는 고립된 봉우리의 형태로 그려져 있다. 다음 표는 두 지도에 수록된 지명과 『팔도군현지도』에 수록된 지명을 비교하여 정리

40) 이기봉, 「靑邱圖와 東輿圖의 지명 위치 비정에 대한 일고찰 : 충청도의 해미현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제17권 제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5, 84~102쪽.

41) 김기혁, 「靑邱圖의 異本 類型 研究」,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04, 171~175쪽.

한 것이다. 『청구도』와 『청구요람』에 수록된 지명은 동일하며, 『팔도군현지도』에 비해 행궁과 호계서원 2개가 추가된 정도이다.⁴²⁾

규장각 소장 『청구도』와 『청구요람』과 안양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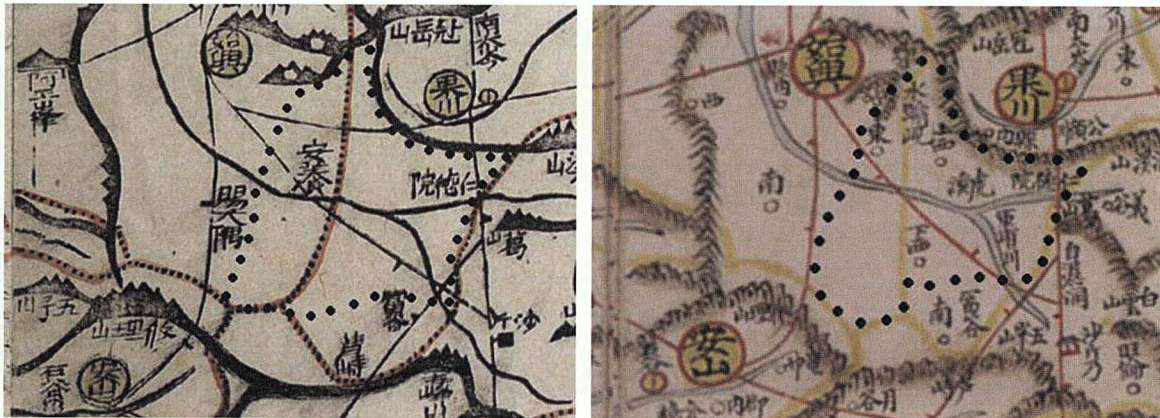
청구도	청구요람	팔도군현지도
葛山	葛山	葛山站
南面	南面	南面
木踰山	水踰峴	木踰山
三聖山	三聖山	三聖山
上西面	上西面	小西面
修理山	修理山	修理山
安陽橋	安陽橋	安陽驛
仁德院川	仁德院川	仁德川
太乙山	太乙山	太乙山
下西面	下西面	西下面
行宮	行宮	×
虎溪書院	虎溪書院	×

재미있는 것은 『팔도군현지도』에 잘못 표시된 금천현(후에 시흥현)의 남면 위치가 『청구도』와 『청구요람』에도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김정호가 『청구도』를 제작할 때 방안식 군현 지도 계통을 참조하면서 오류를 수정하지 못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또한 『청구도』에는 『팔도군현지도』에서 수유현(水踰峴)이 목유산(木踰山)으로 잘못 표시된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에 반해 『청구요람』에서는 수유현으로 교정되어 있다. 이는 김정호가 『청구도』의 중간본 단계까지는 기존 지도의 오류를 그대로 따르다가 최종본에서 수정을 가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김정호가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그림식 지도와 지리지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태을산의 위치는 실제로 수리산 약간 북쪽에 있지만 방안식 군현 지도에는 수리산 바로 남쪽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태을산의 표기가 수리산 바로 남쪽이 아니라 훨씬 남쪽에 있는 산을 지칭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청구도』와 『청구요람』에는 태을산의 위치가 수리산 훨씬 남쪽에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어 더욱 왜곡되고 있다. 김정호가 『청구도』를 제작할 당시까지는 태을산의 위치를 교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행궁의 위치가 안양교 부근이면서 시흥현의 경계 안에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 시흥행궁은 실제로 시흥현의 읍치에 있었으며, 안양행궁은 과천현의 땅이었던 현재의 안양 시내에 있었다. 『청구도』에 표시된 행궁

42) 『청구도제』와 『청구도법례』에 따르면 김정호가 『청구도』를 제작할 때 참고한 지도는 규장각에 소장된 『조선지도』와 『팔도군현지도』가 아니라 이를 약간 수정·보완하여 형식을 다르게 만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해동여지도』 계통이었다. 행궁과 호계서원의 정보가 『해동여지도』 계통의 지도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않다면 김정호가 지도와 다른 지리지 자료를 검토하여 첨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어느 것을 가리키는 실제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규장각 소장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의 안양

1856~1859년 사이에 만들어진 김정호의 『동여도』와 1861년에 제작된 『대동여지도』 중 안양지역에 표시된 지명을 『청구요람』과 비교하여 작성한 표에 따르면 전체의 지명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청구도』에는 대략 1만 5,000여 개가, 『동여도』에는 1만 8,000여 개가, 『대동여지도』에는 1만 3,000여 개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그런데 안양지역에 한해서는 『청구요람』이 가장 많고,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의 순으로 바뀌어 있다. 이는 안양지역이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된다. 시흥현 남면의 위치는 이전의 오류가 『동여도』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동여도』에서는 시흥현의 서면과 남면을 가르는 산줄기가 더욱 분명하게 그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정호는 끝까지 남면의 올바른 위치를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의 경우 『청구도』에 비해 몇 군데에서 수정의 흔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바르게 수정한 대표적인 것으로 안양시 동쪽의 과천현과 광주부의 경계선을 들 수 있다. 현재의 학의천은 실제로 광주부의 땅이었던 의왕시에서 발원하여 과천현의 땅이었던 안양시로 들어온다. 그런데 『청구도』에서는 모두 과천현의 땅이었던 것처럼 그려져 있었다가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서는 사실에 가깝게 수정되었다. 반대로 잘못 수정한 대표적인 것으로 안양시 북쪽의 시흥현 동면의 위치를 들 수 있다. 시흥현 동면은 실제로는 현재의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관악구 신림동과 봉천동, 동작구 상도동 등에 걸쳐 있어 관악산에서 시흥현 읍치로 연결된 산줄기의 북쪽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청구도』의 경우 시흥현 동면의 위치가 실제로 가깝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후 다른 자료를 검토하면서 김정호가 동면이란 명칭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규장각 소장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의 안양 지명

청구요람	동여도	대동여지도
葛山	葛山	葛山
南面	南面	
水踰峴	水踰峴	
三聖山		
上西面	上西面	
修理山	修理山	修理山
安陽橋		安陽
仁德院川	仁德院	仁德院
太乙山		
下西面	下西面	
行宮		
虎溪書院	虎溪	
	東面	
	軍浦川	

동면의 위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산지의 정보 부족을 들 수 있다. 시흥현의 동남쪽은 현재의 석수동으로 실제로는 산천이 험하고 평지가 거의 없다. 그런데 『동여도』와 『대동여지도』만을 놓고 보면 이 지역에 산지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되면 이 지역에도 상당수의 인구가 거주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시흥현의 동쪽 또는 동남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면을 위치시킬 수 있게 된다. 일반인들은 김정호의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산의 위치와 산줄기의 방향이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안양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과천시와의 분수계가 지나치게 크게 그려져 있고, 수리산의 산이 약하게 표현되어 있다. 김정호에게는 현재의 지형도와 같이 자세한 산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 측면에서까지 정확성을 요구하면 안 된다.

여 백

제1편
지도로 보는
안양

31



제2장 근현대 지도 속의 안양

제1절 일제시대의 1:50,000 지도(1917년)

조선시대 과천현과 시흥현(또는 금천현)의 주변 지역에 불과했던 안양지역이 근대 이후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1905년에 경부선이 개통되기 시작하면서였다. 경부선의 개통은 과거의 수운이 담당하던 장거리 물자의 이동 경로를 철도로 바꾸면서 철도역이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현재의 안양시와 부근 지역에 설치된 철도역은 안양역을 중심으로 시흥·군포역이 있다. 경부선 철도역의 상당수는 기존의 군현 중심지였거나 장시나 포구 등이 들어서 있었던 곳에 설치되었다. 시흥역은 시흥현의 중심지였던 현재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설치된 것이고, 안양역과 군포역은 조선 후기에 과천현과 시흥현의 경제적 중심지였던 장시가 들어서 있던 곳이다.

1914년 안양지역 행정구역 개편

과천군	上西面	三峴一里, 三峴二里, 飛山里	시흥군	西二面	一洞里, 二洞里, 飛山里, 安養里, 虎溪里
	下西面	貴仁一洞, 貴仁二洞, 虎溪里, 安陽里, 後頭尾里, 道陽里		東面	安養里
시흥군	郡內面	安養里		西面	博達里
		博達里			

1910년에 일제에 의해 조선이 병합되고, 1914년 「부령 府令 제11호」에 의해 대대적인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단행되었다. 한말의 과천군·시흥군·안산군이 합해져 시흥군이 되었고, 군청 소재지는 영등포면으로 정해졌다. 면의 관할 영역도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과천군의 상서면과 하서면은 시흥군의 서이면으로, 시흥군 군내면 박달리는 시흥군 서면 박달리로,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는 시흥군 동면 안양리로 재편되었다. 과천군의 상서면과 하서면이 합해져 서이면이란 명칭을 얻게 된 것은 과천군·시흥군·안산군이

과거 시흥군을 중심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시흥군 남면과 서면이 합해져 시흥군 서면이 되면서 과천현의 상서면과 하서면을 합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군과 면뿐만 아니라 리도 상당수 재편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와 같다.

지도는 1917년에 육지측량부(陸地測量部)에서 측도(測圖)하여 1918년에 발행한 1:50,000 지도의 안양 부근 지역이다. 이 지도에는 1905년 경부선 철도의 개통과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단 경부선 철도를 보면 안양역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으며, 역 주변에는 다른 마을에서 잘 보이지 않는 약간의 시가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면사무소의 기호인 ‘Q’는 안양리의 안양역 부근이 아니라 호계리(虎溪里)에 표시되어 있어 아직 서이면의 행정 중심지로서 안양역 주변의 성장이 두드러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⁴³⁾ 다만 우편소(郵便所)를 의미하는 ‘㊤’ 기호가 안양역에 표시되어 있어 교통과 통신의 중심지로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917년의 1:50,000 지도와 안양

재편
지도로 보는
안양

43) 虎溪里에 있던 서이면사무소는 1996년 안양시교육청사 아래의 민가 자리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하서면의 면사무소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이승연, 앞의 책, 431~432쪽).



한편 남면과의 경계선이며 현재의 1번 국도 위에 군포장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지만 안양장의 명칭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군포장은 구 군포사거리 부근에 있었는데, 1925년의 을축년 대홍수 때 현재의 안양천이 범람하면서 황폐화되자 남면의 군포역 앞(현재 군포시 당동)으로 옮겼다.⁴⁴⁾ 이때 안양장도 안양1동 소재 구 시장(진흥아파트 앞)으로 옮기면서 안양시장으로 개칭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⁴⁵⁾ 다음 지도만을 놓고 볼 때 1917년 경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1912년의 장시 상황을 정리한 『조선지지자료 朝鮮地誌資料』⁴⁶⁾에도 시흥군의 장시로서는 군포장만 나올 뿐 안양장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38년 말 재래시장 상황을 보여 주는 『조선의 장시 朝鮮の場市』에는 군포장과 안양장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⁴⁷⁾ 1917년과 1938년 사이에 안양장이 다시 설치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승언의 『안양시 지명유래집』을 통해 볼 때 그 설치 시기는 1917년과 1925년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17년 1:50,000 지도의 인문 정보로 가장 자세한 것 중의 하나는 도로이다. 경부선이라는 근대적 교통로가 개설되기는 했지만 도로는 전통시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의 과천시를 지나 동작진을 거쳐 서울과 연결되던 삼남대로보다 현재 서울시 금천구와 안양 시내를 관통하여 수원으로 이어지는 현재 1번 국도가 더 중요한 도로로 변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도로가 정조의 화성 능행 때 중요한 도로로 등장했지만 삼남과 한양을 오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길이가 더 짧은 삼남대로를 주로 이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1910년대부터 진행된 근대적인 신작로의 개설은 단순히 사람의 도보 통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차와 자동차 등의 통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거리보다는 높은 고개나 험한 도로를 피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 점에서 과천시와 서울시의 경계선에 있는 현재의 남태령은 근대적 도로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다.

1917년 1:50,000 지도에 나타난 주요 도로는 『해동지도』 과천현 지도의 도로와 거의 동일하다. 삼남대로와 현재의 1번 국도, 과천면에서 일동리를 거쳐 서쪽의 안양역-수암면(조선시대의 안산군 읍치)으로 통하는 도로, 1번 국도에서 남면의 산본리를 거쳐 수원군 반월면의 속달리로 넘어가는 도로 모두가 『해동지도』의 과천현 지도에 그대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비산리에서 북쪽으로 뻗어 현재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서울대학교로 넘어가는 도로도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해동지도』의 과천현 지도에 상서면에서 수유현(무너미고개)을 넘어가는 도로이다. 이를 통해 『해동지도』가 제작되던 1700년대 전반기에서 이 지도가 편찬되던 1917년 사이에 도로 체계가 큰 변화를 겪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해동지도』가 비록 그림식 지도이지만 당시의 도로 체

44) 이승언, 앞의 책, 151쪽.

45) 이승언, 위의 책, 151쪽.

46)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편, 『朝鮮地誌資料』, 1917, 351쪽.

47) 文定昌, 『朝鮮の場市』, 1941, 245쪽.

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해동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많은 소로가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어 도보 중심의 전통시대 도로 체계를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일제시대 지도에 표기된 지명(1917)⁴⁸⁾

한자 (표기)	일본어 (표기)	일본어 (발음)	한국어 (발음)	한자 (표기)	일본어 (표기)	일본어 (발음)	한국어 (발음)
西二面	ソイミョン	소이몬	서이면	(後頭尾)	フツミ	후츠미	뒤띠미
一洞里	イルドンニ	이루동니	일동리	(蒼岩洞)	チャンバク콜	찬바쿠코루	창박골
(間村)	センマル	센마루	샌말	(安谷)	アンコク	안코쿠	안골
(東便)	トンビョン	통본	동편	(新村)	シンチョン	신촌	신촌
(富林村)	ブルィマル	부리무마루	부림말	(鳥山)	オミ	오미	오미
(馬墳里)	マルムブミ	마루무부미	말무덤이	(林谷)	スブルチ	수푸루치	수푸루지
(秀村)	ペルマル	페루마루	뽀말	(外飛山)	パンナルミ	방나루미	박날미
二洞里	イートンニ	이통니	이동리	飛山里	ナルミ	나루미	날미
(仁徳院)	イントゴン	인토곤	인덕원	(内飛山)	アンナルミ	안나루미	안날미
(陣基)	チント	친토	진터	博達里	バクタリ	바쿠타루리	박달리
(民伯里)	ミンベギ	민베기	민배기	(筆洞)	ブッ콜	붓코루	붓골
(葛山)	カルミ	가루미	갈미	(虎峴)	ボムコケ	보무코케	범고개
(堂山尾)	タンサンミ	당산미	당살미	(東秀庵)	トンスアム	통수아무	동수암
(貴仁)	クイン	쿠인	귀인	(炬洞)	ヘッ콜	헛코루	헛골
(新村)	シンマル	신마루	신말	安養里	アニャンニ	아냥니	안양리
(内村)	アンマル	안마루	안말	(三幕洞)	サムマクドン	사무마쿠동	삼막동
虎溪里	ボムゲ	보무게	범계	(坪村)	ボルト	보루토	벌터
(新基)	セツト	셋토	셋터	(忠勳府)	チョンブ	충부	충훈부
(道陽里)	トヤンニ	토양니	도양리	(石水洞)	ソクストン	소쿠수통	석수동
(軍浦場)	クンポチャン	쿤포창	군포장	기타 지명			
(鳴鶴洞)	ミョンハクトン	뭉하쿠통	명학동	修理山	スーリサン	수리산	수리산
(注點里)	チュチョムニ	추초무니	주점리	秀岩峰	スアムボン	수아무봉	수암봉
(牆内洞)	タマンマル	타만마루	담안말	三聖山	サムソン산	사무송산	삼성산
(陽至洞)	ヤンチンマル	양친마루	양짓말	三幕寺	サムマクサ	사무아쿠사	삼막사
(陵谷)	ヌン콜	능코루	능골	佛成寺	ブルソンサ	부루송사	불성사
安養里	アニャンニ	아냥니	안양리	望海庵	マンヘアム	망해아무	망해암

비고 : ① 서이면 지명이 35개, 서면 지명이 5개, 동면 지명이 5개임.

② () 안의 마을 이름은 행정리가 아닌 자연마을을 의미함.

제1편
지도로 보는
안양

48) 한국어 발음은 이승언, 앞의 책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이 지도에 표시된 인문 정보로서 가장 자세한 것은 행정체계의 면리와 자연마을⁴⁹⁾ 이름이며, 그것을 기타의 지명과 함께 정리한 것이 앞의 표이다. 면리와 자연마을의 이름은 45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자와 함께 가타카나로 실제 발음이 표기되어 있다. 이를 한국어 발음과 비교해 보면 45개 중 한자식 발음으로 읽은 것이 16개인 반면, 순우리말식으로 읽은 것이 29개로 훨씬 많다. 조선시대의 지리지와 지도 등의 자료에도 면리와 자연마을의 기록이 상당수에 이르지만 실제로 어떻게 발음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현재의 지명 자료와 비교해 보면 어떻게 읽었는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당대의 기록을 파악하는 것과 동일하기는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1917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지명 발음은 현대의 지명 발음과 비교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지도가 측도된 1917년까지만 하더라도 지명의 표기는 한자로 했지만 읽기는 순우리말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一洞里(일동리), 二洞里(이동리), 虎溪里(범계), 安養里(안양리), 飛山里(날미) 등 서이면의 행정리 5개 중에서 虎溪里(범계)와 飛山里(날미) 2개가 한자식이 아니라 순우리말식 발음으로 적혀 있음이 주목된다. 2007년 현재 행정구역 명칭의 대부분이 한자식 발음으로 쓰이고 있는 현실과는 다른 측면이다. 이미 조선시대나 일제시대 초기에도 한자식으로 발음되었던 지명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제시대까지 순우리말식으로 읽던 지명에 대한 복원 작업이 필요함을 이 지면을 빌어 제기하고 싶다. 표에서 보면 산과 사찰의 명칭은 일제시대 초기에도 이미 한자식 발음으로 읽었음을 알 수 있다.



안양 부근의 지도 변화(위 : 1917, 아래 : 1932)

참고로 1917년 1:50,000 지도를 보충 설명하면, 이 지도는 1932년에 일부 변화된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발행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수정된 것은 도로 표현의 일부, 1917년 이후 새로 들어선 면사무소와 시장을 비롯하여 일부가 변화된 안양역 부근에 불과하며 나머지의 내용은 동일하다. 따라서 1932년 발행된 지도의 내용에 대한 이해는 1917년의 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다음 그림처럼 변화된 내용을 수정한 안양역 주변만 비교해 보면 별로 문제가 없다.

49) 현재 '마을'을 지칭하는 용어로 '村落'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部落'이라는 용어도 상당히 통용되고 있다. '촌락'이나 '부락'은 모두 일제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이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여 모두 사용하지 말자는 국수주의적인 태도는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의 언어에 익숙한 용어가 있을 경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본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촌락'이나 '부락'보다는 '마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삶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떠올린다.

제2절 1974년의 1:50,000 지도

호계리에 있던 서이면사무소가 1917년 7월 6일에 안양역 부근의 안양1동사무소 옆(안양1동 674-271)으로 옮겨졌다.⁵⁰⁾ 이는 안양역이 본격적으로 안양지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현재의 안양시는 아직 평범한 농촌에 불과했으며, 안양역 부근도 크게 번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다가 1930년대부터 시작된 식민지공업화는 안양, 그중에서도 안양역 부근을 크게 변모시키기 시작하였다.

일제시대 안양과 인근 지역의 인구 변화

면명	현재 지역	1925	1930	1935	1944
과천면	과천시	4,047	4,010	4,265	4,621
남면	군포시	3,842	4,005	4,178	5,222
동면	금천구, 관악구, 안양시 일부	6,167	6,583	8,034	19,443
북면	동작구, 구로구	10,139	13,333	19,068	(경성·동면)
서면	광명시, 안양시 일부	6,117	6,094	6,785	7,713
서이면	안양시	6,165	6,776	8,957	15,708 (안양면)
영등포면	영등포구	6,069	8,420	15,460 (읍)	(경성)

출전 : 조선총독부, 『국세조사보고』, 1925·1930·1935·1944.

표는 일제시대인 1925년부터 1944년까지 안양과 인근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925년과 1930년 사이에 인구가 눈에 띄게 성장한 지역은 영등포면과 북면으로, 경성에서 가까웠던 현재의 영등포역(영등포면)과 노량진역(북면) 주변의 공업발달과 인구 밀집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었다.⁵¹⁾ 1930년 이후 영등포면은 더욱 성장하여 1931년에 영등포읍으로 승격되었고, 북면 역시 지속적인 인구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36년에 영등포면 전체와 북면의 인구 밀집지 일부는 경성부에 통합되었다. 이러한 경성부 외곽 지역의 성장은 1930년대부터 경부선을 따라 남하하여 현재의 안양인 서이면의 인구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표를 보면 1930년에서 1935년 사이 서이면의 인구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나며, 1935년에서 1944년 사이에는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재판
지도로 보는
안양

50) 이승언, 앞의 책, 432쪽.

51) 이하 행정구역의 변천 사항은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7(경기도 상, 1985)과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서울편, 1966)에서 각각 안양시와 영등포구 부분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반면에 경부선이 지나가지 않는 현재의 과천시인 과천면과 경부선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던 현재의 광명시인 서면은 일제시대 내내 인구 성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현재의 군포시인 남면에서는 약간 인구 성장 경향이 보이지만, 서이면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인구 성장이 경성에서 가까운 물리적 거리와 경부선의 철도역 입지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1941년에는 서이면의 명칭이 안양면으로 바뀌는데, 서이면의 인구 성장이 안양리에서 유래된 안양역 때문이었음을 잘 보여 주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 안양역 주변의 성장은 안양역의 명칭을 더욱 부각시켰고, 자연히 명칭도 안양면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안양역 부근의 인구 성장은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해방 이후 영등포에 있던 시흥군청이 안양1동 674-251번지로 옮겨 왔으며,⁵²⁾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의해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인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96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안양지역의 인구 성장으로 1963년에 인구밀집지역인 안양역에서 가까운 시흥군 동면의 신안양리와 서면의 박달리를 편입하였고, 1973년 1월 1일에는 법률 제2597호에 의해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되었다. 과거 동면의 신안양리를 석수동으로 분리시켰고, 일동을 관양동으로, 이동을 평촌동으로 고쳤다. 그리고 안양동은 안양1~6동으로, 이외에 박달동·비산동·호계동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동이 되었다.

1945~1975년까지 인구 변화

연도	1949	1955	1960	1966	1970	1975
인구	20,085	22,301	31,290	54,287	90,505	124,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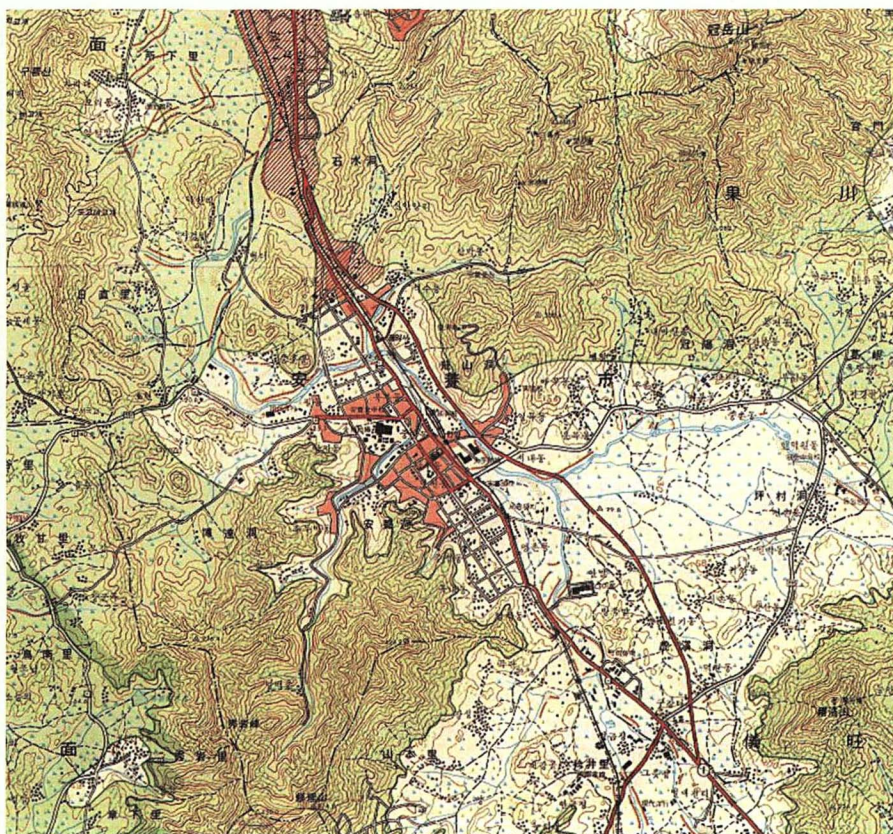
출전 : 권용우, 『안양시의 도시화과정과 공간변화』, 안양상공회의소·안양지역경제연구센터, 1992, 50쪽.

1974년의 1:50,000 지도는 1976년에 인쇄 발행되었고, 안양시 전체가 상세하게 망라되어 있다. 안양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가지가 서북과 동남으로 뻗어나가고 있어 안양시의 12개 동 중 안양동이 6개로 분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안양시의 이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개발과 공장의 입지 때문으로, 지도에는 현대양행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공장 명칭이 표시되어 있다. 서울과 가까운 현재의 석수동과 구 장터인 군포사거리 방향의 도로변에도 서서히 시가지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안양역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현재의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박달동은 도로변의 일부를 제외하면 평범한 농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로 체계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안양역을 중심으로 한 인구밀집지역의 가로망이 복잡해졌다는 점과 서울로부터 내려온 1번 국도와 거의 나란하게 안양 외곽을 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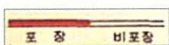
52) 이승언, 앞의 책, 439쪽.

구장터 부근에서 합류되는 새로운 도로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2가지 변화 모두 인구의 집중과 거주지의 밀집 결과이다. 거주지의 밀집은 새로운 도로의 개설을 자연스럽게 필요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통 혼잡을 만들어 내어 시내를 통과하여 외곽으로 연결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 지도에 나타난 1번 국도와 거의 나란하게 있는 남북 우회 도로의 모습은 1974년 이전에 안양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4년의 1:50,000 지도와 안양시

재판
지도로 보는
안양

이 지도에는 1974년경 도로의 포장 정도가 잘 나타나 있다.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는 “”으로 구분되는데, 안양 시내를 서북-동남으로 관통하는 도로는 모두 포장도로이다. 반면에 과천에서 인덕원을 거쳐 1번 국도에 합해지는 조선시대의 삼남대로와 안양 시내에서 과천으로 연결된 도로는 아직도 비포장도로이다. 1974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의 발달이 개항기 이후 교통의 핵심을 차지했던 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새롭게 부상하던 도로 교통 역시 기존의 체계를 바꿀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포장도로를 제외하면 조선시대의 도로

체계가 아직도 상당수 남아 있고, 마을의 입지 역시 크게 변화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명의 발음은 근대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1917년의 1:50,000 지도의 표현을 통해 비록 한자로 표기되었지만 발음은 순우리말식으로 읽은 것이 상당히 많았음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1974년의 1:50,000 지도에 표기된 동과 자연마을의 이름을 통해 지명의 읽기가 상당히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는 1974년 1:50,000 지도에 표현된 동과 자연마을의 명칭을 순우리말식 발음과 비교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이 지도에는 총 52개의 동과 자연마을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순우리말식 이름은 8개에 불과하다. 1917년의 1:50,000 지도에서 45개의 리와 자연마을의 명칭 중 29개나 순우리말식 발음으로 적혀 있었던 것과 크게 대조되는 것이다.

1974년의 1:50,000 지도에 표시된 지명

지도 지명	우리말 발음	지도 지명	우리말 발음
安養洞	안양동	飛山洞	날미
담배촌	담배촌, 신촌	임곡동	수푸루지
후두미동	뒤뜸이	매곡동	마장골
창막골	창박골	내비산동	안날미
능골	능골	우곡동	우곡동
북부동	북부동	冠陽洞	관양동
중앙동	중앙동	뺨말	뺨말
남부동	남부동	우촌	우촌
냉천동	찬우물	마분동	말무덤이
평촌동	평촌동	중촌동	가운데말
주점동	주점동	간촌동	샌말
명학동	명학동	동편동	동편
곡내동	골안	부림동	부림말
시내동	시대동, 구시장	인덕원동	인덕원
博達洞	박달동	坪村洞	벌말
양지동	양짓말	평촌동	벌말
필동	붓골	민백동	민배기
호현	범고개	귀인동	귀인
石水洞	석수동	신촌동	신말
신안양리	신안양리	갈산동	갈미
삼막동	삼막동	虎溪洞	범계
석수동	석수동	안말	안말
벌터	벌터	방축말	방축말
신촌	신촌	신기동	샛터
화창	꼬챙이	덕현동	덕고개
충훈부	충훈부	구장터	구장터

비고 : ① 음영처리된 지명은 한자식 발음이고, 나머지는 순우리말식 발음임.

② 우리말 발음은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1996)과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7(경기도 상, 1985)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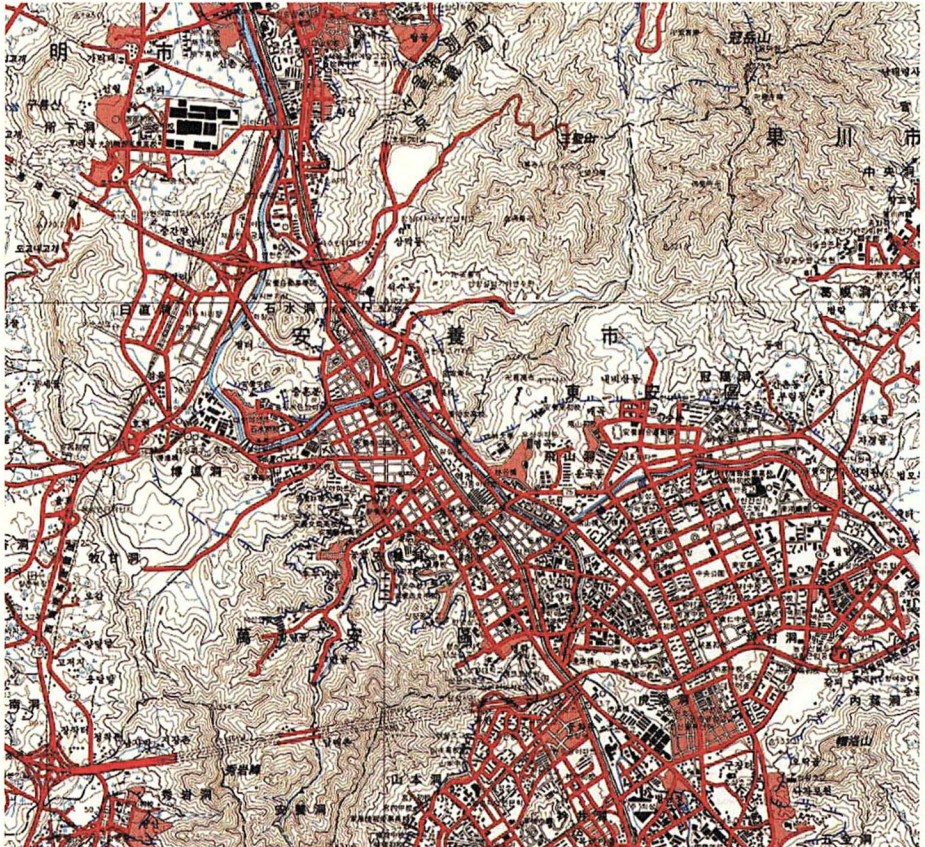
한자 발음으로 기록된 48개 중 순우리말식 발음이 확인되는 것이 25개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 지도에 비록 한자식 발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주민들은 순우리말식으로 발음하고 있던 지명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도에 한자식 발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모두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방향을 지니고 있다는 경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1917년에 공식적인 행정리였던 虎溪里(범계)와 飛山里(날미)가 순우리말식 발음으로 적혀 있었던 것과 달리 1974년에는 호계리와 비산리라는 한자식 발음으로 바뀌어 불렸던 점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 앞의 조선시대 안양지역 군현과 면의 경계 지도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행정동명은 1974년까지의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추가된 것 모두 한자식 발음으로 불리고 있다.

순우리말식으로 발음하던 지명이 한자식으로 바뀐 것은 행정동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마을 이름을 따서 붙인 대표적인 명칭으로 하천·다리 등을 들 수 있는데, 안양지역에서는 대부분 순우리말식 발음이 아니라 한자식 발음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다. 하천의 경우 곡내천·내비산천·능곡천·마분산천·임곡천·평촌천·호현천·후두미천 등이, 다리의 경우 내비산교·비산교·수촌교·신촌교·양지교·임곡교·제이양지교·제삼양지교·학운교·호계교·후두미교 등이⁵³⁾ 순우리말식 마을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식 발음을 그대로 딴 대표적인 것들이다. 1974년경 한자식 발음으로 표기된 지명의 공식적 사용이 단순히 지도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행정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다.

지명의 한자식 발음화는 일제시대에 주로 나타난 현상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지명에서 그런 경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안양지역에서는 1917년의 지도에서 확인되었듯이 대부분의 지명이 그렇지 않았다. 그보다는 한말 이후, 특히 해방 이후 한글 쓰기가 상당히 보편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에서는 조선시대처럼 한자 쓰기가 지속적으로 고수되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한자 1개에 주로 1개의 발음으로만 읽는 한국식 한자 읽기의 영향도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는 한자로 지명을 쓰는 것이 거의 사라졌지만 한글로 쓰더라도 한자식 발음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3) 이승언, 위의 책, 292~301·365~391쪽.

제3절 2004년의 1:50,000 지도



2004년의 1:50,000 지도와 안양시

제6권
자료로 보는
안양

42

1973년에 시로 승격된 안양시는 1975년에 12만 4,848명이던 인구가 2007년 2월 현재 62만 4,512명으로 약 5배 증가하였다. 약 32년 동안 이루어진 이러한 인구의 급증은 단지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시 인근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안양시 북쪽과 서울시에 접해 있던 시흥군 서면은 1979년과 1981년에 각각 소하읍과 광명시로 승격되었으며, 2007년의 인구는 31만 2,581명이다. 남쪽에 있던 남면과 의왕면은 1979년과 1980년에 군포읍과 의왕읍으로, 1989년에는 군포시와 의왕시로 승격되었다. 2007년의 인구는 각각 27만 3,645명과 13만 5,822명이다. 동북쪽의 과천면은 1982년과 1986년에 과천출장소와 과천시로 승격되었으며, 2007년의 인구는 6만 956명이다.⁵⁴⁾ 2007년 현재 안양시 주변 지역은 행정적으로만 경계가 있을 뿐

54) 각 시청의 홈페이지 참조.

이지 실제로는 모두 연결된 거대한 하나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1973년 이후 안양시 행정구역 변화⁵⁵⁾

연도	변화 내용	동수
1973	안양읍→안양시	12
1979	안양6동→안양6·7동/석수동→석수1·2동	14
1982	비산동→비산1·2동	15
1983	호계동→호계1·2동	16
1985	안양6동→안양6·8동/호계1동→호계1·3동	18
1989	만안·동안출장소 설치	18
1990	석수2동→석수2·3동/비산2동→비산2·3동/관양동→관양2·3동	21
1992	비산2동→비산2동·부흥동/호계2동→호계2동·범계동 만안구·동안구 설치	23
1993	관양2동→관양2동·부림동/평촌동→평촌동·평안동/범계동→범계동 ·신촌동/부흥동→부흥동·달안동/호계1동→호계1동·갈산동	28
1994	안양3동→안양3·9동/박달동→박달1·2동/평안동→평안동·귀인동	31
2004	만안구 14동, 동안구 17동	31

1973년 이후부터 평촌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인 1989년까지 안양은 공업도시로 알려졌다. 시가지의 확장은 안양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길게 뻗은 경부선과 1번 국도를 축으로 이루어졌다. 이 외에 앞쪽처럼 강하지는 않았지만 안양역 서쪽의 박달동과 동쪽의 비산동 방향으로도 일부의 시가지가 확장되었다. 2004년의 1:50,000 지도에도 그러한 경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 쌍용제지, 동화약품, 동양나이론, 엘지전선물류센터, 유한양행 등 크고 작은 공장들이 앞의 축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또한 안양역에서 서쪽의 박달동 방향으로도 대한페인트, 삼화알미늄 등의 공장이 들어서 있다. 이러한 공장의 입지는 1970~1980년대 안양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고, 주거지와 도로도 동일한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위의 표를 보면 1989년 이전까지 경부선과 1번 국도의 남북축에 있던 안양동·석수동·호계동에서 지속적인 분동이 일어났으며, 안양역 동쪽의 비산동에서도 분동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의 인구 급증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의 하나는 평촌신도시의 건설이다. 이 사업은 1974년의 1:50,000 지도에서처럼 가장 넓은 농경지와 전통마을 수준으로 남아 있던 학의천과 안양천 사이의 평촌동·비산동·호계동·관양동 일대를 2004년의 1:50,000 지도에서처럼 대규모 주거 단지로 변모시켰다. 총면적 154만 4,536평에 1989년 8월 30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총 4만 1,401호에 16만 9,60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도시를 건설하였다. 이러한 평촌신도시의 개발은 근대 이후 철도노선을 중

55) 안양시청(<http://www.anyang.go.kr>)

심으로 시가지가 확장되던 경향에서 벗어나 이제 자동차와 지하철 중심으로 시가지가 확장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평촌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89년과 완결되는 1995년 사이에는 13개의 동이 늘어나 총 31개 동이 되었다. 이 중 경부선과 1번 국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기존의 시가지에서 늘어난 것은 3개에 불과한 반면에 평촌신도시에서 늘어난 것은 10개에 이르렀다. 평촌신도시의 건설과 급격한 인구의 증가는 1992년에 기존 시가지 중심의 만안구와 평촌신도시 중심의 동안구로 나누어지는 근본적 원인이었다. 1994년 만안구와 동안구의 관할 동은 각각 14·17개가 되었다. 동안구가 만안구보다 3개 많은 동을 관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평촌신도시의 건설이 안양시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평촌신도시 건설이 끝나는 1994년 이후부터 2004년까지 더 이상 분동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통해 대부분의 지역이 거의 모두 개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73년 시로 승격되고 이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외부 지역과의 연계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1974년에 서울과 수원 사이에 국철 1호선이 연장 개통되면서 관악역·안양역·명학역이 설치되었고, 1982년에는 서울시 구로구와 관악역 사이에 석수역이 신설되었다. 1993년에는 평촌신도시의 건설과 연계되어 지하철 4호선이 연장 개통되면서 인덕원역-평촌역-범계역이 설치되었고, 시청을 비롯한 국가와 공공 기관들이 신도시로 이동하였다. 지하철의 건설로 안양시는 서울시와 일상적인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그 결과 단순히 공업도시로서만이 아니라 비대해진 서울시의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외곽의 중요한 주거지구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안양시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통한 외부 지역과의 연계가 강화된다. 2007년에 완전 개통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시의 남쪽을 관통하고 있는데, 평촌나들목이 설치되어 경부·중부·서해안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1995년에 안양시 서북쪽을 통과하는 안산-일직 구간이 부분 개통되었고, 2001년에는 완전 개통되었다. 박달동의 서해안고속도로에 광명역 나들목(인터체인지)이 설치되어 안양시·광명시 지역과 직접 연결되고 있다. 2004년에 개통된 KTX 고속철도는 시의 서북쪽 일부를 통과하고 있다. 비록 안양시에는 고속철도역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박달동과 연결한 광명시 일직동에 설치되어 있어 외부 지역과 안양시의 연계력을 높이고 있다.

이기봉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